

마음이 정결한 자

승리장로교회 30주년
40일 말씀 묵상집

James Kim 목사

"저는 이 책을 사랑하는 승리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저의 아버님이신
김창세 목사님과 승리 식구들에게 헌정합니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서현교회 김 경 원 목사

지금 우리는 책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수많은 책들을 접하고 또 매일 신간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홍수 때 물이 귀하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서적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더욱이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될 서적은 얼마나 될까 생각하던 중, 이번 James Kim 목사님의 말씀 묵상집은 참으로 생수와 같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묵상이라 할 수 있다.

김 목사님은 이민 1.5 세로 훌륭하신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친이 섬기셨던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 한국목회 훈련을 위해 수년 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몇 년 간 우리 교회 영어예배와 영어성경반을 지도하면서 큰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 큰 사랑을 주고받았으며 지금도 그 교제는 계속되고 있다. 항상 기도하며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읽어 영혼의 유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랑하는 동역자 김 목사님의 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김 목사님은 진실하다. 신앙과 삶이 진실하기에 그가 쓴 글 역시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 그대로이다. 그래서 감동이 주어진다. 또 다른 이유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묵상이다. 세상적인 말로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본인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온 영감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묵상집을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사랑받을 줄 믿으며 기쁨으로 이 묵상집을 추천한다.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이며 삶의 목표이다.

서 춘 응 목사 (“성경난제해설” 저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은 신문이나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다독도 좋고 속독도 좋지만 그렇게 읽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케 하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해석해 주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목회자의 설교로도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한다(계 1:3). 그러나 예배를 통한 설교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힘들고 복이 되지 못한다면 보다 더 삶에 적용과 실천을 목표로 한 성경 공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의 삶 모두가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만의 말씀에 대한 목상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James Kim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전해졌던 그 말씀들을 다시 목상하여 한데 모아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을 축하하며 기뻐한다. 이 목상집은 저자가 새벽예배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목상한 내용들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우선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적용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점검하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적용한 것이다. 이 책을 기쁘게 추천하는 것은 저자가 말씀 앞에서만 아니라 신자들 앞에서 대담하게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변화를 갈구하는 간절한 소원때문이다. 이 목상집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힘들게 하는 외식, 영적인 교만, 나의 능력, 선행, 육신적인 정욕과 사치, 과욕, 질투를 경계하며 주님의 겸손과 정결, 사랑과 진실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효과적인 말씀의 목상을 할 수 있게 되며 저자처럼 대담하고 진솔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이르게 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점과 흠이 없이 담대히 설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깊은 통찰과 동기와 힘을 부여해 줄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접하므로 저자처럼 간절한 경건의 소원과 말씀의 목상이 세상을 이기는 구별된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 세상에 빛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기원한다.

말씀 묵상 나눔의 기쁨

박수용 장로 (“우리 ... 사랑할까요?” 저자)

제가 James Kim 목사님을 처음 만난 곳은 캘리포니아 대학 얼바인(U.C. Irvine)에서입니다. 그 때 James 목사님은 Korean Christian Fellowship(KCF)(한국 기독교 친목??)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 80 년대와 90 년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KCF 동아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사 전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교회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많은 일꾼들 중에 바로 James 목사님과 또한 제 아들 Peter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James 목사님의 삶속에 역사하시사 목사님의 타고나 수줍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투명한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James Kim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승리장로교회에 가서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세미나 내용 중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달란트나 혹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1)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2) 당신에게 무엇이 수월합니까? (3) 당신은 무엇을 즐기십니까? James Kim 목사님의 취미는 축구입니다. 나이에 비해 그리 어렵게 느끼지 않고 축구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즐기는 것은 말씀 묵상을 하여 나누는 것(QT sharing)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James 목사님은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을 부지런히 나누고 있습니다[승리장로교회 웹사이트 (www.vpcla.com), 싸이월드(www.cyworld.com/chmonk106),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dicaprio74>), Facebook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570315874>)] (이 부분은 optional 임). 그의 글은 술수의 단어들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특별한 기술에 관한 것보다 그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James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글로나마 나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책은 James Kim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투명성과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고자 하는 몸부리침의 작은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집을 사용하시사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있길 기원합니다.

프롤로그

승리장로교회 30 주년을 맞이하여 …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승리장로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미션(Mission)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Build His Church, Build His Kingdom!)입니다. 이 미션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을 믿고 그 미션에 동참하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때에(마 9:37) “일꾼을 세워라!”(Raise the Leaders!)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 파송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설립 30 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40 일 말씀 묵상집을 발간하게 되어 감사하며 기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30 년전, 제가 12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봐주시고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교회 운영위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젊은 종을 사랑해 주셔서 추천서를 써 주신 김경원 목사님과 서춘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셔서 책을 발간해 주신 서현교회 김영철 집사님(국민출판사 대표)과 제 글을 봐주시고 수정해 주신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혹은 “형제” 혹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벧전 1:22).

2010년 7월.

주님의 말씀으로 부서지며 다시 세움을 받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Day 1: 마음이 정결한 자

[시편 73 편]

언젠가 새차를 구입했을 때 그 차를 잘 관리하려고 저는 제 아이들보러 차 뒷 좌석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은 별 문제없이 차를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제 첫째 아들인 딜런(Dillon)이가 제 차 뒷 좌석에서 '우왁'하고 그만 토를 왕창해 버렸습니다. 아마 그 전날 밤부터 속이 안좋아서 잠을 못자더니 결국 딜런은 제 차 안에서 토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 때 제 첫째 딸 예리는 냄새가 지독하다고 손으로 자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딸 예은이도 냄새가 난다고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약간 토해냈습니다. 하하. 그 때 감사하게도 주유소(gas station)가 근처에 있어서 저는 급히 그리로 운전하고 가서 딜런의 뱃 속에서 나온 냄새나는 그 모든 음식물들을 물수건으로 다 치우고 차 바닥과 좌석을 다 닦았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생각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음식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 거짓말, 질투와 시기 및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저는 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맡고 만지고 하는 것들 중 너무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며 더럽히고자 하는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지켜 나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복된 자들이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 절). 그러나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 절). 왜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습니까? 과연 마음의 정결함(purity)을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 중 우리를 거의 실족케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 3 가지로 시편 기자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므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3 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할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삽의 질시(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어떤 나이 많으신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여서 힘든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별 고생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성도님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이 성도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위험한 이유는 사단은 이러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질시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삽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질시하게 됩니다. 과연 악인의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5 절). 또한 악인은 몸이 건강합니다(4-5 절). 그리고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합니다(12 절). 이 얼마나 의인이 충분히 부러워할만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고통, 고난 없이 몸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격을 때로 겪으면서 몸은 쇠태어져 가고 있는가?’.

둘째로, 아삽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6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악인의 교만함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행동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강포(violence)를 가리킵니다.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입니다(6 절). 이것은 곧, 그들의 모든 행동과

표현은 남을 압제하며 착취하는 포학뿐이라는 뜻입니다(박윤선). 둘째로, 악인의 교만함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눈이 높아짐(haughty eyes)을 가리킵니다. 7 절을 보십시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상력이 한계가 없어져서 욕심가운데 재물을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물을 취하는 고로 예산보다 많은 수입도 생기게 됩니다(박윤선). 셋째로, 악인의 교만함은 입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입의 죄를 범함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8-9 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란 말씀은 자기가 하늘처럼 높은 듯이 자긍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는 말씀은 가는 곳마다 악당을 위주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두루 다니며 그의 교만함 가운데 자긍하며 악당을 합니다. 이 악인의 모습을 볼 때 고통 당하는 의인은 충분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삼은 악인을 좇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10-11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찌 알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시편 기자 아삼이 목격한 것은 악인들의 악한 생각, 그 교만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방하는 당파가 생겨 악인을 좇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삼은 이것을 보았을 때 거의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악인들을 모방하는 이들은 배교하여 그들이 믿어 오던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삼에게 있어서 힘든 도전입니까? 악인을 좇는 배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아삼은 분명히 조금이나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때에 악인에 대한 아삼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도다"(12 절).

이러한 악인의 형통, 즉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힘 빠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를 낼 것 같지 않으십니까? 혹시 악인들을 마음으로 욕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삼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히 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13 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둘째로, 아삼은 자신의 곤고한 삶을 한탄하였습니다[(14 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결국 의인 아삼의 마음에 불평을 일으켰던 요소는 악인들은 형통하는 반면에 의인 자신은 곤고에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박윤선). 이러한 생각, 곧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곤고함을 보았던 아삼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삼은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복잡성’을 해결하여 보려고 애썼습니다(박윤선).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마음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16 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러한 곤란 가운데서 아삼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3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아삼은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17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멸(18 절), "황폐"(19 절), "전멸"(19 절) 그리고 "멸시"(20 절)입니다. 18-20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갠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들은 멸지 않아 '파멸'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듯이 그들의 악행을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이르면 깨신듯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아삼은 의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4 절을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의인의 결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 장 18 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셋째로, 아삼은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2 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찢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과거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시하던 아삼, 그리고 질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을 찢르는 고통스러운 불평을 품었던 아삼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짐승"같이 어리석었던 자라고 자책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악인의 결국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아삽은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3-28 절에서 한 세 가지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아삽의 첫째 고백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3 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함과 교만함과 악인을 좇는 백성들을 보고 거의 실족할뻔 하였던 아삽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주시므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24 절). 여기서 아삽을 인도해준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아삽에게 성소에서 보여주신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이었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의인에게 내세에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둘째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8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자기의 몸과 마음이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삽의 셋째 고백은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 편 25 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정결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교만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재물을 탐하고 고난과 고통을 피하여 욕심가운데서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는 악인의 결국과 의인을 결국을 알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102 장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

- 1 절.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 2 절. 이 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 3 절.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음이 정결한 아삼을 거의 실족케 하였듯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행통을 질시하게 하므로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쫓는 백성들로 보게 하므로 우리를 실족케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 아삼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삼처럼 우리의 우매 무지함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아삼처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아삼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고백하면서)

Day 2: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 장 1-4 절).

언젠가 본 한국 YTN 밤 11 시 뉴스가 생각납니다. 그 뉴스는 다른 아닌 한국 경기도에 있는 “임종체험관”이라는데서 실지로 임종을 체험하고자 영종사진도 찍고, 유서도 쓰고 또한 그 유서를 읽고, 자기의 영종사진을 들고 영안실로 가서 유서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종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대부분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유서를 읽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지로 관에 당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사람이 삽으로 흙을 관위에서 천천히 붓는 것이었습니다. 좀 관하고 간격을 뒤편서 흙소리가 나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흙소리를 산 자가 관속에서 들으면 실지로 죽음을 더욱더 체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 임종체험을 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과정 속에서 가족 식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임종체험관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웰 비잉’(well-being)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잘 죽는 준비를 하고자 이러한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별거 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좀더 피부로 느끼고 또한 죽을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 장 2 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산 자가 이것에 유심 하리로다”(And the living should take this to heart)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this)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 장 2 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 (It is better to go to a house of mourning than to go to a house of feasting, for death is the destiny of every man; ...).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기차에서 내려 종착점에 이를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죽음의 관점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순간 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 장 2 절에서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2 절). 다시 말하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선 장례식에 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 자신의 죽음을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에 느끼는 죽음이란 저로 하여금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평생을 잘 살았는지는 못 살았는지는 죽은 후에야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장례식 때에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칭찬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모든 사람은 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1)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2)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one others call us), 그리고 (3) 우리가 얻은 이름(one we acquires ourselves). 과연 우리가 얻고 있는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내 이름 석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10 장 7 절을 보면 지혜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의 이름은 죽은 후에 기념할 때에 칭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축복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 장 1 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이름”(a good name)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a good ointment)보다 낫다고 지혜자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의 부(wealth)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본능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에 비취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슬픔보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에 비취 또 달리 말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 희락에 빠짐을 별세한 자의 유족을 방문함보다 좋아합니다(박윤선). 그러나 이미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육체적 희락(쾌락)은 무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집에 가서 세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맛보는 것이라고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되기 때문입니다(3절).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문제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헛된 세상적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잔치집에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가야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후손들에 마음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앞으로 장차 우리 장례식에 참석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기억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심지어 이웃들이 우리 이름 석자를 생각할 때에 참된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마음에 남기고 떠나고 싶어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Day 3: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사도행전 20 장 31, 35 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시고 계시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 인생관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제 마음에 심어주시는 관점은 죽음의 관점입니다. 전도서 7 장 2 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저는 살아 있지만 장차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관점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사도행전 20 장 17-38 절 말씀을 새벽기도회 때 전파한 후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죽음 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육신의 가정 식구들이나 영의 가정 식구들인 교회 식구들에게 심어주고 떠나는 추억들이 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인 가정, 친척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등등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추억을 남기고 떠나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인 천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은 우리들에 대한 추억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기에 우리의 죽음이 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저는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인생관 중 또 하나는 바로 “인생은 추억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특히 우리는 주어진 만남의 시간 동안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원치않는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들 가운데서 과연 상대방 사람들에게 어떠한 추억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어지는 추억들이 우리가 죽어도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좋은 추억들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안 좋은 추억들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추억들보다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들을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식구들은 우리가 죽어도 그들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우리가 우리 식구들에게 안 좋은 추억들을 더 많이 심어주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그들 삶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사도행전 20 장 17-38 절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 후 이 아침에 이렇게 다시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히 31 절과 35 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구절을 보면 “기억하라”(31 절)와 “기억하여야 할찌니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삼년간 있으면서(31 절)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므로(18 절) 그들 마음에 어떠한 추억을 심어주었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지 한 두 가지로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 장 31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17 절)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31 절).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난 후 “흉악한 이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29 절)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말을 하므로(30 절) 결국은 에베소 교회 “양 떼”(29 절)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 중 이단에 넘어가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줄 알았기에 그는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인(28 절) 장로들에게 자기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헤아려보고자 제 가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고 만일 제가 먼저 떠나야 한다면 그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과연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세 자녀를 다 맡기고 떠나는 마당에 과연 제가 제 아내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권면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아마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아내.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오늘날까지 시간에 무엇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기억하시오. 나는 당신과 우리 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오. 그리고 내가 떠나도 당신이 더욱더 두 배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세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길 바라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 결혼 전부터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그 상대방 배우자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아내나 제 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 장 21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며 그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순종해 나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저는 죽음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 이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는 이 아침입니다. 과연 제가 바울처럼 제가 떠난 후 저의 육신의 가정이나 영적 가정인 교회 식구들 가운데 사단의 유혹인 이단의 침투와 미혹을 알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간절히 권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 할텐데,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이 있을찌라도 예수님께 등돌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잘 해야 할텐데, 과연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과연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제가 죽어도 과연 제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이 제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임스”라는 존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제임스”라는 남편, 아빠,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저는 행복한 남편이요 아빠요 목사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삼년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던 것처럼(20 절) 저 또한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교훈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던 것처럼(32 절) 저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 식구들과 가족 식구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는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식구들과 영적 가족 식구들인 교회 식구들에게 부지런히 심어주는데 저는 헌신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 장 35 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삼년을 같이 하면서 범사에 모본을 보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자기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33 절). 한 마디로, 바울은 탐심하지 않았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탐심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정반대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기와 자기와 동행들의 쓰는 것을 자기 손으로 일했습니다(34 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 주었습니다(27 절).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20 절). 그는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21 절). 바울은 입술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19 절). 그리고 그는 비록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22 절)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그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23 절)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24 절).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본을 보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의 모본을 생각할 때 제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고 헨리 나우웬의 책 제목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두 번 불렀던 찬송가 507 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놓고 결혼 전부터 기도해 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중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상대방 배우자(지금의 아내)가 제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그녀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하며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가 제 가족 식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도 찬송가 518 장 특히 4 절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닳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를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인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사역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닳아가는 자는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보이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심어준 좋은 추억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는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에 많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이요 참된 부자입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안좋은 추억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을찌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므로 그 좋은 추억들로 하여금 안 좋은 추억들을 덮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서로 헤어질 때가 점점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추억들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이렇나 선한 영향을 서로에게 끼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겸손히, 눈물로, 인내로 섬기며 또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을 준비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이별을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들어내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 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Day 4: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2 장 17-29 절]

21 세기의 선지자로 불리워졌던 A. W. 토저 목사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이란 제목의 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토저 목사는 진짜 크리스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기 발견을 위한 7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이 시간이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토저 목사는 “누가 가짜인가?”를 8 개로 말씀하셨습니다:

- a.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한다.
- b.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 c.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 d.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얻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할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e.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는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 f.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
- g.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어진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 h. 가짜는 영적 균형 감이 없다: “진리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쏘서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28-29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a Jew who is one outwardly)과 “이면적 유대인”(a Jew who is one inwardly)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판단”)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과연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표면적 크리스천, 즉 겉으로 보기에만 크리스천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게만 크리스천’(표면적 크리스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표면적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17 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자칭하였습니다.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받은 백성에게 소속돼 있음(belonging to the chosen people), 율법을 의지함(reliance on the law)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NICNT).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 속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17 절). 이러한 자랑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표면적 크리스천 즉, 겉으로 보기에만 크리스천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표면적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자신의 영적 우월감, 교만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갈급해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1:18-32)와 하나님의 심판(2:1-16)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표면적 크리스천은 스스로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로마서 2 장 19- 20 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소경 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지도하며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들이 소경 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영적 우월감 곧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란 우리를 장님으로 만듭니다. 영적 교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돌아보며 자아 성찰하게 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꼬집어 내어 은근히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그 성도보다 더 훌륭한 성도임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좀 안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겸손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는데 좀 성경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들은 교회의 평안을 깨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로, 표면적 크리스천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21 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유대 신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그 율법을 의지하였고(17 절)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줄 착각하며(18 절) 교만함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데로 도적질 하지 말라(21 절),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미워하라(22 절) 등등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23-24 절에서 이렇게 면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겉으로 보기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기에 가르치는 교훈도 성경적이지만 왠지 ‘위선적 이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남은 잘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집 막내 예은이에게 “인내”가 ‘waiting nicely’(잘 기다리는 것)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게는 인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성경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제 자신이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자녀에게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였으니 그 자녀의 마음에 감화를 주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교훈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동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능욕에서 난 것이다. 그런 교훈은, 피교육자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일으킨다.”

마지막 넷째로, 표면적 크리스천은 외면적 생활을 위주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3 절). 만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 절).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특권의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자부심 또는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율법(the Law)과 할례(circumcision)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 받은 백성들의 증표이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삼고 그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영적 우월감,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크리스천, 즉 겉으로만 크리스천답게 보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외면적 신앙생활에 취중 하다 보니 외식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 앞에서 보이는 크리스천의 삶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참된 크리스천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입니다. 이면적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면적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 장 29 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진정한 참된 유대인 또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율법을 행하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는 사실보다 조건적, 즉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편지로나마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적 크리스천, 즉 참된 크리스천은 에베소서 2 장 8-9 절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참된 크리스천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결코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면적 크리스천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삽니다.

결코 이면적 크리스천은 표면적 크리스천처럼 율법에 대해서나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교만함 가운데서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로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에 나아가서도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등등 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들어내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성가 가사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닮은 듯 한데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 있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면적 크리스천은 외면적인 생활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면적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29 절하). 이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힘씁니다. 참으로 내면을 가꾸는 신앙생활은 아름답습니다. 한국 삼일 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설교 요약 중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인터넷):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세계 속에서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껍데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찬송가 518 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란 찬송이 생각납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진심으로”라는 말이 20 번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해설을 찾아 보니까 이 찬송은 흑인 영가라고 합니다. 흑인영가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얼굴 색깔이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흑인 노예들의 신앙적 바람과 정한이 오랜 세월을 거쳐 노래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과연 노예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유대인 신자들처럼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하면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적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제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절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 이면적 크리스천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알길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외면이 아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참된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예수님을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Day 5: 영적 자세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 장 9 절).

“당신이 행하는 일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The kind of person you are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kind of work you do).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들 중에 하나인 우리 마음 가운데 적합한 영적 자세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적합한 영적 자세들 중 하나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복음 18 장 9 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로서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16:15). 그의 영적 자세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나 다른 죄인들보다 자기 자신이 항상 낫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11-12 절). 왜 바리새인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정도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책 “은혜 각성”에서 이것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므로 영적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 씩 우리 마음에 영적 교만과 우월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 절). 적어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 인줄을 알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빌립보서 2 장 3 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약 4:6).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아니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들춰지는 마음과 동기의 죄까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righteousness)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과 우월감을 경계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아들 딜런(Dillon) (이름 뜻: 신실하고 진실하라)의 9 살 생일을 축하하면서]

Day 6: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1 장 32 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므로 더욱더 불신앙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에 더욱더 무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무지해져서 마음에 강박함과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악된 열매는 바로 불순종이요 불만족입니다. 즉, 불신앙의 최악된 열매는 불순종과 불만족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 장 32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21 절)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습니다(26 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27 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으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그들의 불신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은 불순종과 불만족의 쓴 열매만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의 열매를 맺게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명의 정탐꾼들 중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불신의 보고를 한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우리로 낙심케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28 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21 절)고 명하셨을 때 “예”하고 순종했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케 하자”(22 절)고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므로 말미암아 결국 불신의 보고를 한 열 명의 정탐꾼들을 원망하는 죄악된 열매를 맺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30 절). 그러기에 그들은 정탐꾼들을 자기들 앞서 보내었던 것입니다(22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 행하시사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하니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자기들의 형제인 정탐꾼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결국 원망이란 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쓴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구원해 내시사 약속의 땅인 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31 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앙, 순종,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에 불신앙을 경계하면서)

Day 7: 물질의 복받기를 두려워하십시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7 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 복, 복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 6:24). 이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우상화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물질을 위해서하고, 일을 해도 물질을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물질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물질을 축복을 구하고,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를 받아도 물질의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우리는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귀 모두 다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데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보물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딤후 6:10)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받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러 물질의 복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7 절을 보면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18 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한 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14 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입니다(13 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7 절),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9 절)인 가나안에 들어가 먹어서 배불리고(10, 12 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면서(12 절) 그들의 우양이 번성하며 그들의 은금이 증식(multiply)되어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교만해 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가 불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풍족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배가 불러 교만해 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비만(fat of heart)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비만이 생겨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될까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풍부한 도시 한 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기 보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궁핍하고 주리는 가운데서 광야의 축복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 광야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축복은 바로 성품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축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사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2, 3, 16 절; 참고: 호 2:14). 우리는 이 낮아지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은 것보다 훨씬 귀하고 큰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겸손히 앞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자를 들어 일으켜 사용하시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8 장 3 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십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심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6 절).

우리는 물질의 복받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복이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증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번창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늘어날 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고 풍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만이 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 버릴까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시 한 복판에서 세상의 풍부함을 누리길 원하기보다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품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운 광야를 고독한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나우웬).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광야에서 빛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찬송가 500 장 1 절).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한 복판에서 성품과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적 축복과 인복과 더불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에게 내려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Day 8: 외식

[시편 50 편]

애드린어 고스틱 & 다나 텔포드의 “신실: 세상을 얻는 비즈니스 경쟁력”(The Integrity: Advantage & Works)이란 책을 보면 신실한 사람의 10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10 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에 대하여 저자들은 이러한 의미 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큰 잘못이 아니다. 정말로 큰 잘못은 그 실수를 덮으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러기에 “외식”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의미는 ‘자기를 감추는 자’ 또는 ‘위선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원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를 가리킨 것으로서, 후에는 위선자,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 ‘휘포크리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종교인들에게 상용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태도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경우가 바로 외식의 적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왠지 이 외식을 생각할 때에 저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한 다윗의 범죄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범한 죄를 은폐하려고 임신한 밧세바에게 우리아를 보내려고 했던 다윗,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결국은 요압 장군과 짜고 이방인의 칼에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윗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우리 앞 백주에 이일을 행하리라” (삼하 12:12). 우리는 은밀히 죄를 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 편 5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 아삽은 성도를 가리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의 성도”, 즉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자기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박윤선). 과연 외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모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 편 6 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셀라)”.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공공연하게 보편적으로 선포하심에 있어서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아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을 다음과 같이 힘있게 지적하였습니다:

(1)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 광경을 온 천하 사람들더러 보라고 합니다 (1 절).

하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히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되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들 앞에서 들춰내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5 장 11 절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지[들춰내지(expose)] 않고 우리가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춰내십니다.

(2)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의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시되(2 절), 그것이 불이나 광풍과 같이 두렵다고 합니다(3 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의 진리(빛)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씀이 필경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요 12:48). 시편 119 편 130 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히 죄를 계속 범할 때에 우둔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박해집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됩니다. 그러한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비취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3) 하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합니다(4 절).

하나님의 교회는 특이한 축복을 받은 것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먼저 실시됩니다(벧전 4:17) (박윤선).

둘째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우리의 형식주의를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 편 7 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외식하는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 곧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형식주의는 그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찾아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줄 았았습니다(박윤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외부적 의식을 거행하는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 아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제사(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 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3 절).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입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의 삶을 삽니다. (2) 둘째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합니다[(14 절하) “…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신실한 사람의 특징 중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이나 됩니까?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갚아야 합니다. (3) 셋째로,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15 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을 우리가 받치는 것보다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Ridderbos).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였습니까? 한 마디로, 경건은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였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50 편 16 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것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종교를 전문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17 절을 보십시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뒤로 던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식이요 죄가 아닙니까?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뒤로 던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뒷전에 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 원인을 칼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가달의 증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의 결핍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죄악을 범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외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였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7 계명과 8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 절을 보십시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여기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란 말씀은 제 8 계명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제 8 계명을 어긴 것이고, “간음하는 자 와 동류가 되며”란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제 7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의 9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19 절을 보십시오: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9 계명을 어겼습니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20 절 보십시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은 제 6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긴 죄입니다. 요한일서 3 장 15 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 다 살인하는 자니 …”.

하나님은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며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줄 착각하였습니다(21 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계속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차례로 심판하여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 절에 가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잊은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를 생각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형식주의를 경계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질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외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오늘 시편 50 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의 전에 모으시사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을 경계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식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외식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와 또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목사 나눔

(안과 밖이 일치된 삶을 추구하면서)

Day 9: 헛된 쾌락

[전도서 2 장 1-11 절]

쾌락주의(快樂主義)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위키백과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원리(道德原理)로 삼는 윤리설이다”. 결국 쾌락주의란 쾌락은 본질적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 선이라고 주장하는 행복주의의 한 형태입니다(인터넷).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쾌락주의”하면 생각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의 경향을 대표하는 철학 중 하나로서(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 기원전 300 년경에 등장했는데 이 학파의 창시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이 학파는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인터넷). 이 학파는 순간적·감각적·육체적 쾌락보다는 영원한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적이고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쾌락에는 욕망이 개입되어 있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고통이 비롯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므로 고통 없는 쾌락을 추구했던 이 학파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신적 쾌락에도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지적 욕구) 그것을 최소화하므로 말미암아 고통도 최소화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최소화한 상태를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ataraxia), 즉 “번뇌가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인터넷). 이 학파는 마음의 평정을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본 것입니다. 이 학파 외에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는 “키레네 학파”라고 합니다. 이 키레네 학파의 쾌락주의는 이 학파의 창시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아리스티포스가 처음 내놓았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덕이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덕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즐거움은 쾌락의 충족으로 얻어집니다. 쾌락은 유일한 선이자 최고의 선입니다. 키레네 학파의 사상가들은 미래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의 감각적·육체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티포스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 즉 철인(哲人)은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주의의 이상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되 지혜로써 쾌락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전도서 2 장 1 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게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쾌락(pleasure)을 추구해 본 것입니다(1-2 절). 오늘 본문 1 절 상 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회락 또는 쾌락으로 시험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좋은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쾌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도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3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 장 3 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하여”.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시도한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술 마심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은 자기의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즐겼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 학파의 주장처럼 술을 즐기되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지혜로서 술을 지배하면서 솔로몬 왕은 술을 즐겨 마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키레네 학파의 주장처럼 솔로몬 왕은 술의 쾌락을 자신의 지혜로 지배하는 가운데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 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취하여서”(embracing foll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솔로몬 왕의 결론은 ‘술취함으로 쾌락을 누리보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술이 주는 쾌락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입니까? 인터넷 한 기사를 보니까 술을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시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은- 월 래가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 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 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 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 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 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 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그 인터넷 기사에 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마신다고 하나, 얼큰하면 - 쾌락을 위하여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 방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취가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분이 좋아서 일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코올을 조금 마시면 처음에는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위산 분비가 촉진되며 또한 도파민(dopamine)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므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과음하거나 장기간 남용 또는 과용하면 술이 불행하게도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우리 뇌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매일 십만 개씩 뇌세포가 자동 사멸하는데, 알코올을 다량으로 마시면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학습이나 기억 또는 사고능력 모두 저하되는데, 이들의 저하는 알코올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과음하면 취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인터넷). 또 다른 사람은 술을 이럴 때 자기는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때 술을 마신다. 나쁜 일이 있을때 술을 마신다. 축하할 일이 있을때 술을 마신다.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고백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운 사람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속이 상할때 술을 마신다. 누군가 보고플 때 술을 마신다. 마음이 울적할 때 비가 올때면 술을 마신다. 피로에 지쳤을때 술을 마신다. 단합을 위해 술을 마신다. 호기심에 술을 마신다. 외로우면 또 술을 마신다”(인터넷).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지금 뒤돌아보면 호기심이 제일 작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 따라 강남간다고 저 또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여 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수련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나니 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 술좌석에는 자주 있어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느꼈던 것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유익함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술로 인하여 오히려 전에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의 장례식 때 이런 저런 기억들이 납니다. 술이 주는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은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 장 18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창세기 9 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 하나님께 복을 받아(1 절) 누리는 가운데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더니(20 절)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이야기(21 절)가 나옵니다. 창세기 6 장 9 절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 장 37-39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멸망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저런 쾌락에 도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귀 영화에 도취해 있는 것 같고 성적 쾌락에 도취해 있는 것 같고, 이런 저런 것들에 중독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 술 중독(alcoholic) 또한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취함에 있어서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취함이란 어리석음을 취하는 것이다’.

둘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큰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 장 4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 솔로몬 왕은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3 절하)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두 번째 일은 바로 큰 사업 경영이었습니다(4 절). 여기서 솔로몬 왕이 시도한 큰 사업 경영이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들이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4 절 하반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5 절)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판 것입니다(6 절). 그리고 이 모든 집이나 포도원이나 여러 동산과 과원등을 관리해야 하니 솔로몬 왕은 노비도 사기도 하고 또한 집에서 나게도 하였습니다(7 절). 왜 그는 이러한 사업을 크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려보려고 한 것이지만 그 쾌락을 어떻게 누려보려고 했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부(wealth)였습니다. 오늘 본문 7 절 하반절-8 절 상 반절을 보십시오: “...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 솔로몬 왕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은 평안한 때에 되어졌습니다(대상 22:9) (박윤선).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평안할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추구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타락시킵니다(박윤선). 사치란 무엇입니까?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뜻”합니다(인터넷). 인터넷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기사가 있어 보았습니다. 그 가시에 김난도란 사람은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에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유형을 크게 내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시형 사치', '질시형 사치', '환상형 사치', '동조형 사치: (1) 과시형 사치란 흔히 부자들이 계급적인 특성을 의식해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남들과 같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소유한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본으로서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치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질시형 사치란 가짜부자들이 진짜부자를 흉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치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질시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음에도 사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구매 유형인 환상형 사치는 초라한 것을 두려워하고 변신을 꿈꾸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리해서라도 비싸고 유명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의 덕으로 자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환상형 사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은 '동조형 사치'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준을 맞추려고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구들이 모두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었기에, 나도 입어야 한다는 심리가 그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산다"는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무리해서라도 사치품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분수에 넘게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속에 풍자돼 나도는 미국 이민 사회 야야기 하나가 있어 나눕니다: 미국 이민을 왔을 때 LA 간 사람은 셋방살이를 하더라도 먼저 고급 승용차를 사고, 뉴욕간 사람은 먼저 비즈니스 업체를 구입하며 시카고로 온 사람은 우선 집부터 장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욕과 시카고 이민자들은 실속을 차리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데 비해 LA 이민자들은 외화내빈으로 남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는 외형적 사고방식을 빚대 한 말입니다(사실은 아니지만)(인터넷). 여러분은 '수분지족(守分知足)'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분수를 지키는 것을 수분(守分)이라 하고 분수를 아는 것을 지분(知分)이라 하며 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안분(安分)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분수가 있습니다. 제 분수를 바로 알고 제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며 제 분수에 지나치게 과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과분(過分)'이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한문의 ‘과(過)’는 두가지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나침’ ‘과’요 둘째는 ‘과심’의 ‘과’입니다. 지나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과’는 불행의 원인이요 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과식·과음·과로·과색·과용 등 모두 건강을 해치고 행복을 좀먹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일이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야하고 머무를 자리에서는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유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소유욕이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이 하였지만(7 절)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습니다(8 절).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 수록 더 원하는 욕망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유욕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두 번째 시도인 사업을 크게 하는 경영 또한 ‘이리석음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3 절).

셋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려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처와 첩들을 많은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 장 8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신명기 17 장 17 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열왕기상 11 장 1-3 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지 말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통하지 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2 절). 그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인 신들을 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입니다(2 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1 절). 그에게는 후비가 700 명, 빈장이 300 명이나 있었고(3 절) 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3 절) 왕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습니다(4 절).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던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행하는 육체적 간음 행위는 결국 영적 간음의 죄악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야후 인터넷 뉴스 기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관계’ ... 여신도 성폭행한 목사”란 제목 아래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10 여 년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T 종교단체 목사 A 씨(46)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T 종교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 10 여 년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모든 죄가 씻겨진다"며 총 6 명의 20 대 여성 신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T 종교단체가 리플을 보니까 "통일교"란 말도 있는 것을 보고 한면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러한 성적 타락의 범죄행위는 우리 기독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말할 때 우리는 "성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욕"(sexual desire)은 식욕 및 수면욕구와 더불어 인간의 3 대 욕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 육체적인 욕망인 성욕에 빠져들어 포로가 되면 강간같은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욕이 충동적인 방향으로 폭발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간입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상류층의 부부 스와핑, 아예 결혼이라는 개념조차 없애버린 변화무쌍한 동거,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거침없는 혼전 성교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너무도 쉬운 이혼, 남 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폰 섹스나 화상 섹스, 카메라폰이나 컴퓨터 카메라들 통한 즉석 음란 화상 전송,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중고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초등학생에까지 확산되는 성 경험의 급속한 증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중독을 일으키는 인터넷 혹은 사이버 포르노!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자극적, 노골적, 변태적이 되어 가는 우리의 성(性)문화를 보노라면,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성욕은 본능에 따라 때와 장소 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인터넷). 참으로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부부 사이에 한 번쯤 바람피는 것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성적 쾌락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쾌락 추구 가운데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알고자 자기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과 큰 사업을 통한 부와 소유물들, 그리고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누렸던 1000 명의 여인들, 과연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 장 1 절 하 반절과 2 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즉,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에 빠져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본 결과 그의 체험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쾌락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그는 던졌기 때문입니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쾌락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What does pleasure accomplish?)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본문 11 절에 이렇게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누려보았지만(10 절)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내란 결론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쾌락은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 추구했던 쾌락이 실제 체험적으로 헛되고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린 전도자 솔로몬 왕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1 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시편 43 편 4 절 말씀에 비취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나의 극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전 12:13).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 장 9-11 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명령인 복음 전파에 순종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가리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빌 4:1)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낀 마음뿐일세.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82 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수요일기도회 때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Day 10: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때에 여호와와 그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민수기 16 장 3, 7 절).

교회가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질투와 시기, 싸움과 다툼, 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어내야 하는데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 분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답 중 하나를 오늘 본문 민수기 16 장 3, 7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분수에 지나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 장을 보면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파를 짓고(1 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2 절)와 아론을 거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3 절). 이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3 절)라고 거스렸습니다. 이들의 거스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시기함에서 나온 것으로서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것입니다(박윤선). 왜 레위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자손들은 자기의 직분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9 절). 결코 레위 자손들의 직분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들은 작게였기므로 말미암아 더 크게 보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 그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들은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 분수에 넘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레위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3 절)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분수에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넘치는 발언과 더불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분수에 넘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거스리되 분수에 넘치는 생각 속에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파를 짓습니다. 마치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1 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던 것처럼(2 절) 교회 안에서도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파를 짓고 나서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 또는 중진들과 함께 일어나 교회 지도자들을 거스립니다. 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거스릅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3 절). 이들은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당파를 짓고, 당파를 지은 후 교회 안에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거스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깨는 자들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보면 주로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분쟁 사이에는 목사의 사모님과 장로님들의 부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종 들리는 교회 안에 분쟁의 소식들을 보면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안에 분쟁의 암장 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을 보면 대부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싸우고 다투며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높이려고하기 보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텐데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차리고(롬 12:3) 믿음의 분수대로(6 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작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직분을 직분으로 여기기보다 직위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크게 보이는 직위를 시기하며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장로, 권사가 되려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려고 세상 정치판처럼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판(?)에는 부인들이 더 앞장서서 자기 남편을 장로되게 만드려고 한답니다. 남편 장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이 부인들로 말미암아 이 선거판은 더욱더 시끄럽고 난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거판엔는 돈과 물질들도 오고가는가 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장로 투표를 할 때 세상처럼 경사도파 전라도 파로도 나눠진다고 합니다. 장로 피택된 사람이 경사도 출신이면 투표하는 교인들 중 경사도 출신들은 그 피택 장로님을 뽑는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왠지 무조건 만들어 낸 이야기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데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찬송가 347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가 생각납니다. 1 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떠한 힘으로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끝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섬김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으로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경계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겸손히 교회를 섬기길 기원하면서)

Day 11: 질투의 눈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 장 9 절).

“질투”하면 저는 1992 년 6-7 월에 MBC 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질투”가 생각납니다. 텔런트로는 최수종씨와 고 최진실씨가 등장하여 젊은이들의 풋풋하면서도 가슴저린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성숙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아픔과 기다림, 아름다움을 경쾌하게 담아내어 시대가 요구하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아직도 어영풋이 기억나는 것은 그 드라마 주제곡인 “질투”의 가사 중 “넌 대체 누구 보고 있는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 앞에 서 있는데 …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 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인터넷). 그 때 제 나이 24 세, 그 드라마와 주제곡을 들으면서 젊은 총각의 마음을 자극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다시 그 주제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 들었을 때하곤 너무 달리 좀 싱겁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질투”란 그리 싱겁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질투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질투란 무서운 사단의 무기라 생각합니다.

질투란 무엇입니까? 위키 낱말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못마땅히 여겨 탐내거나 혹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없애려는 하는 태도”(인터넷). 이 정의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참으로 할말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참 미워했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는 저에게 아무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저는 그냥 미워했었습니다. 원치 않은데도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질투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제 내적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 드는 질투 또는 시기는 결국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이러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빌 2:5-8). 만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고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제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낮게 여길 것입니다(빌 2:3).

물론 성경에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질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5 장 11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 “위로부터 난”것(약 3:17)으로써 성경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투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 장 9 절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질투심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약 3:15).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 장 9 절을 보면 우리는 질투하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주목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를 보면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았더라’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The New Strong's Dictionary of Hebrew and Greek Words 에 의하면 ‘to watch with jealousy eye’(질투의 눈으로 보다)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 대답은 “그 날 후로” (삼상 18:9)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6 절) 뛰놀며 창화하여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 절)고 하므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8 절)라고 말한 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사울 왕,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므로 조연출도 아니었던 목동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극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1, 3 절) 또한 사울의 딸 미갈도(20, 28 절)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16 절).

그러니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던 사울(12, 14, 28 절)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힘 있게 내리므로(10 절)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벽에 박고자 손에 든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10-11 절).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울은 그 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므로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29 절). 그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된 질투심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사울과 같은 최악된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시편 73 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여(3 절) 거의 실족할 뻔했지만(2 절)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되어(17 절) 최악된 질투심을 극복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 아삽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17-20 절) 또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25 절) 그는 최악된 질투심을 극복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최악되고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살며시 스며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의 눈을 경계하고 비느하스의 질투의 눈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Day 12: 남편의 죄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에스더 1 장 11 절).

추락하는 남편의 권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한 두가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Feminism (남녀동권주의)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표면적으로 느끼고 또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상은 성경의 어긋나있기에 결국 여성의 권리 회복이란 "약"이 남편의 권위 추락이란 "병"을 주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남편의 무책임함이 남편의 권위가 추락하는 원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우리 남편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남편의 권위가 추락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남편의 권위가 추락하므로 오는 현상은 남편의 권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성경적 권위를 감당 못하므로 그 권위를 오히려 남용하므로 결국은 권위주의적 남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주의적 남편은 아내에게 어떠한 죄를 범하는가 오늘 에스더 1 장 말씀 중심으로 페르시아 (지금 "이란")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부인인 왕후 와스디에게 범한 세가지 죄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1 장 1-9 절을 보면 3 잔치들(banquets)이 나옵니다. 첫번째 잔치는 180 일(약 6 개월)동안 "모든 방백들과 신복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것입니다(3 절). 그 목적은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赫赫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4 절). 두번째 잔치는 도성수산 대소인민들을 위하여 7 일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것입니다(5 절). 이 두 잔치들과 대조적으로 에스더 저자는 한절(9 절)로 왕후 와스디가 베푼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왕후의 잔치가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은 두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 이십칠 도를 치리하는 왕(1 절)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赫赫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반면에 나중에 가서야 자기 아내를 나타내고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11 절). 특히, 두 번째 잔치를 보면 대소 인민(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들을 초청해서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8 절)하면서 자기의 풍부한 대로 잔치를 베풀었지만(7 절) 그러나 자기 몸인 아내를 위해선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대소 인민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자기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만일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엡 5:28)는 성경 말씀을 순종을 했다면 그는 그의 아내 왕후 와스디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죄를 수 없이 많이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지 않다고 우리 남편들이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느낌을 우리 남편들이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느낌을 주므로 아내의 가치가 너무나 초라하게 비취질 때에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분노의 죄, 이 얼마나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수 없이 범하는 죄입니까? 에스더 1 장 10-12 절을 보면 두 번째 잔치 때 아하수에로 왕이 포도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즐거웠을 때에 왕후 와스디를 일곱 어전 내시를 통해서 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도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12 절).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였습니다(12 절).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합당한 것인가입니다.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왕후 와스디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을 좇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공적인 자리에서 왕적 여인들은 얼굴을 보이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왕후 와스디는 왕명은 어겼지만 나라

법은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므로 왕인 아하수에로 남편에게도 왕권에 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이유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27 도를 다스리는 왕이 한 아내를 다스릴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왕의 자존심은 상당히 구겨졌을 것입니다. 대소 인민에게는 마음대로 하게 하고 아내인 왕후 와스디에게는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권위주의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때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나중에 아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페르시아 법을 어기지 않았던 와스디 왕후, 그녀의 결정과 행동은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와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따르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남편은 그러한 아내의 행동을 불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위엄과 권위 등이 공적인 자리에서 추락하는 순간,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으니 아내에게 분노를 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를 버렸습니다.

분노하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14 절) 중에 므무간이란 사람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16 절).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황의 기색"을 살피는 자였기에) 또한 야망 속에서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였기에 결코 분노하는 왕이 좋아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므무간은 왕후 와스디를 죄인취급을 하되 왕에게만 잘 못한 것이 아니라 각 도 방백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16 절). 또한 그는 왕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녀들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17 절)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9 절)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분노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아하수에로 왕, 왕후가 페르시아 법을 순종하여 자기에게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결국 아내를 버리라는 말을 청종하였습니다(그래서 에스더가 결국은 왕후가 되었던 것임). 그는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ruler in his own house)라고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22 절). 자기 자신이 rule(원칙)을 어기고 아내를 공적인 자리에겐 얼굴을 제일 마지막에 자랑하려고 했으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에 ruler(주관자)가 되게 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이 행동은 참 어이가 없는 권위주의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남편들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아내들에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귀히여기는 남편, 아내에게 성내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와 결혼하면서 맺었던

서약에 충실하는 남편, 그러한 남편이야말로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는 성경적인 남편입니다.
그러한 남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최고의 아내와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길 기원하면서)

Day 13: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 장 7 절).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종종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늦게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 등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제가 주제 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와 이런 저런 대화를 한 후 나중에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을 깨닫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노회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가 때 몇몇 목사님들과 대화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목사님들이 새로운 노회를 가입할 때 이명서를 띠어 오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에게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적어도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확신있게(?) 나눴습니다. 그런 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적이 딱 한 번 밖에 없었는데 그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했을 때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들릴 정도로 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제대로 자아성찰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 없이 말한 내용 중에 아주 조금이나마 늦게 깨닫게 될 때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조심이 말을 하자고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말해 보지만 또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 장 7 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의 처인 밋세바와 동침하고(11:4) 그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듯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5 절) 그 죄를 덮고자 그 잉태한 원인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돌리고자 간교한 계책을 세웁니다(박윤선). 그 간교한 계책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쉬게 하도 음식까지 달려 보냅니다(8 절).
 그러나 충성된 군인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잡니다(9 절).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간교한 계책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13 절). 왜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밧세바가
 잉태된 아기가 다윗과 더불어 동침하여 생긴 아기가 아니라 부부인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여
 생긴 아기인 줄로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야 뭐 DNA 시험도 없었으니 그 아기가
 다윗이 아기인지 우리아의 아기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아는 또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누웠습니다(13 절).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14-25 절). 그리고
 요압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고 요압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25 절). 어떻게 충성된 자기 군인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여 놓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여 놓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27 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성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면책하셨습니다(12:1-4). 그 때 다윗은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5 절). 죄를 덮고 덮으려고 했어서 자기 양심마저 덮어버려서 그랬던 것인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마땅히 죽을 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책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7 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면책입니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면책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나는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분명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입니까?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의 분노 가운데 나온 발언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 월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 가정의 달인 5 월에 가정 설교를
 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 아마

그 때 제가 전파한 말씀의 초점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아무게가 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터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죄를 면책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인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야 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그 칼날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꽂혀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자신을 영적인 거울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비춰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자아성찰과 자아반성을 게을리할 때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므로 “내 죄로소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저 사람의 죄입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한 자인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범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이렇게 범죄하여 범한 죄를 덮고자 할 때에는 웬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조차 내 마음에 덮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교만함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면책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한 죄를 덮고자 하면 양심도 덮어지고, 은혜도 덮어지고, 귀도 덮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될 텐데 ….

성령의 검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들쳐내시는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Day 14: 우리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 장 6 절).

우리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릇된 관점과 그릇된 가치관 그리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관점이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2 절).
즉, 우리의 그릇된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관점으로 순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관점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았었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의
관점으로 볼 때 선악과는 보았었다는 말이 아니되는 것이었는데 하와의 관점에서는 보았었던
것(창 3:6)을 보면 그녀 마음에는 순종의 미보다 불순종의 추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안목의 정욕(요일 2:16)에 이끌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관점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그릇되게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된 가치관이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사 53:3). 예수님을 귀하에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슬픔과 질고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슬픔(비애)의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질고를 싫어하므로 얼굴을 그것들로부터 돌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안락함과 평안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싫어하며 멸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양직했을 뿐만 아니라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관점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양직 할 뿐만 아니라 먹음직도 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오히려 순간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참으로 귀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육신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보양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헛된 것들을 먹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만듭니다.

우리는 그릇된 생각을 합니다(4 절).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5 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4 절).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4 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건만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성전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생각을 빼뚫어 놓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보양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2:16).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좇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좇아온 것입니다(16 절). 이렇게 이생의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릇된 관점과 그릇된 가치관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 행하되 각기 우리의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사 53:6). 우리같이 그릇된 사람들의 모든 그릇된 죄악들을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간적이고 헛된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영원한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옳바르고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기원하면서)

Day 15: “괴로울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 장 7-9 절).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가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보라”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1 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 절)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나 과연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괴로울 때 괴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 장 7 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 절에도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 장 7 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7 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입을 열어 변호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잘 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면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7 절).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저주의 말이나 내가 쓸모 없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말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 다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은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곤욕을 당하므로 괴로울 때에 두려움 속에서 또한 억울함 속에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이사야 30 장 15 절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53:7). 그 분은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헨리 나우웬의 말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 말씀은 침묵 안에서 태어나고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다.”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라는 말,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음성들이 들릴 것이고 또한 많은 말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 세상의 시끄럽고 귀찮은 잡다한 음성을 따 돌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작고 친밀한 음성을 가려 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삼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삼아야 합니다.

둘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 장 8 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묵상한 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4 절)고 생각(착각)하였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 받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8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괴로울 때 바른 생각, 즉 성경적 생각을 하지 못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우면 괴로울 수록 침묵 속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논리적 생각(이성)이 앞서기보다 감정이 앞서서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이끌려 생각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 장 9 절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는 괴로울 때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울 때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괴로울

때 그 입에 궤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에 입술로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포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 언행으로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옴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옴은 그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행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옴이 가능했기에 우리도 가능합니다. 옴기 1 장 22 절과 2 장 10 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1:22),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학 이 모든 일에 옴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2:10). 오히려 옴은 괴로울 때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1:20).

그러므로 우리도 괴로울 때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께 범죄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괴로운 환경에서 감정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괴로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괴로운 환경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

괴로울 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 주간 셋째날 새벽기도회 후)

Day 16: “내 마음이 놀릴 때에”

[시편 61 편]

요즘 D.M.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투쟁”(The Christian Warfare)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사랑하는 동역자 한분과 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적 싸움에 대하여 더 알아야 겠다는 관심과 필요를 느꼈기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옴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마귀는 어느 정도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아래 옴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 옴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옴에게 와서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겼으며 지키는 자들은 살해당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옴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 하나님의 불이 - 즉 번개가 -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옴 1:16). 여기서 번개를 일으키는 것과 번개로서 파괴시키는 일이 마귀의 영역과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가 무엇보다도 관심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여러가지 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도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즘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빼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혼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영적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딛과 올무를 놓고 있는 사단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 그리고 완전한 절망감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망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한 예가 본문 시편 61 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 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은 “내 마음이 놀릴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자포위”(self-enveloping)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여러가지 우고에 싸여서 기진 맥진해 갈고 절망되어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되어 가고 있었던 다윗,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놀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여가 하는지 한 네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놀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 편 1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 에 유익하소서”. 언제가 수요기도회 때 시편 42 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낙망과 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고 도전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여러가지 역경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낙망하며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시편에 나오는 다윗도 그의 마음이 놀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다윗은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절망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포자기하며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 보다 높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다 깊은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하였던 요나 선지 처처럼(욘 2:4)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 편 4 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그 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 마음이 눌려져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3 절).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 절 후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그는 주님께 간 구하면서 그에게 피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꼭 붙잡고 놓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혹은 예정)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히(진리로) 이행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박윤선).

인생의 절망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인자)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4 절).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 편 5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언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권이 일시 동안 불의한 압살롬 일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의 손 안에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원수로 인하여(3 절)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열왕기상 19 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호렘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있느냐”(9, 13 절)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10, 14 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자기 행위(혹은 공로)를 주장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회개했다는 죄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므로 거듭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우리의 삶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61 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과거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때 그 때 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초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 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기억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 편 7 절을 보십시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 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대에 미치게 하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6 절). 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다윗은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

들로 인하여 마음이 놀려 절망가운데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피한 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소망하되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하는 모습을 ... 우리 또한 다윗처럼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나라에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계 22:20).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에게 피한 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8 절).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마음이 놀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해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찬송가 364 장)을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낙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회로 삼길 기원하면서)

Day 17: 위기 관리

[느헤미야 4 장 7-14 절]

미국 경제에 대한 미주 한국일보 이철씨의 칼럼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투자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문제 원인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투자은행들이 간 덩어리가 커져 겁도 없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자까지 손댔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이 일어나자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경영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온 글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추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윤을 극대화 시키다 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이 작동하지 않는다.”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면 그 만큼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결국 욕심이란 것이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준 높게 잘 작동해야 할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라는 이철씨의 말에 전 공감합니다.

참으로 미국 경제가 어렵기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CNN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람 10 명중 8 명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어제 월요일 뉴스엔 경제 문제로 인하여 한 가정에 가장인 45 살 남자가 자기 장모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을 통으로 싸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경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삶의 위기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두운 때, 우리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 때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아갔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식 당시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1천 5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빠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했습니다. 이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이 가져오는 끝없는 불안과 패배주의가 바로 위기의 본질이라고 보고 어떤 경제 정책보다 ‘자신감’ 회복이 불황을 이기는 급선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르고 위기가 다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루스벨트는 단절시키고자 했습니다(인터넷).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로 인하여 삶이 어두워질 때가 종종 있으며 또한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를 잘 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삶 속에서 위기가 적어도 한번은 왔었을 터인데 그 왔었던 위기를 통하여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 또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14절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온 네 가지 위기를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이겨 나아갔는지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위기 관리에 대한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하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위기 관리 교훈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가온 네 가지 위기는 늘어나는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의 연합 무력 공격, 유다 백성들의 낙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대처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갇힌바 되었다”(hemmed in by the desert)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환경을 보고 낙심하여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5 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위기 관리 교훈입니다.

기도 응답 5,000 번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몰러는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 를 모르는 사람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ABC 를 알고 있습니까?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을 접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위기 의식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 염려 같은 것을 무릎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대처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각기 서로 땅을 보고 낙망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란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포위된 상태에서도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미하던 바울과 실라처럼(행 16 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위기 관리 교훈은 파숫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기가 찾아 왔을 때 파숫군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 장 9 절을 보십시오: “...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때 침략자들을 막기 위하여 파숫군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파숫군을 어디에다가 세웠습니까? 그는 파숫군을 성벽에서 눈에 잘 띄는 곳과 취약한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3 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 지고 서게 하고”. 그러면 침략자들이 유대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종족을 따라 파숫군을 함께 세운 이유는 그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견고히 서서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중수 했을

뿐만 아니라(느 3:28-30)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서서 자기들의 가정과 도시를 지키려고 파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략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막고자 파숫군들을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종족을 따라 눈에 잘 뛰는 곳과 취약한 곳에 파숫군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위기를 맞이할 때 파숫군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파숫군을 세워야 합니다. 왜 눈과 귀에 파숫군을 세워야 하면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파숫군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 위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귀에 파숫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감을 주는 소식들을 막는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에 우리는 파숫군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위기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 확신의 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숫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적 상황이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위기 관리 교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대적자들로 인하여 위기를 접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끊임 없이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 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연약한 믿음과 불확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1:15; 4:14).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충분히 위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이것은 불신앙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는 우리는 결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는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큰 위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대적자들을 향한 두려움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4 장 13-14 절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사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

위기 관리를 더욱더 배우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2008년 10월 7일,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기원하면서)

Day 18: 기독교인의 마음 관리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에서 남이니라”(잠언 4장 23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형의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다가 흑인 강도가 들어와 돈을 훔치고 도망가는데 그 형의 어머니가 뒤 쫓아 나아갔다 총에 맞아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 때 그 강도가 가게에서 훔쳐간 돈은 \$100 이었다고 합니다. 어이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100 을 지키려고 강도를 쫓아 나아가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순간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귀한 생명이 단 돈 \$100 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이 좀 충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키는데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을 지키려고 별의 별 노릇을 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돈에 마음을 빼껴 돈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그 돈으로 교회 안에서 목에 힘을 주며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돈으로 컨트롤(control)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내 핼케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돈보다 마음을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러워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마음을 구원해 보려는 교만한 본능 속에서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찬 마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행 15:10). 이 시험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구원 계획을 문제시하여 의심하는 마음입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러한 마음은 "주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마음입니다(행 15:1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교훈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시간을 허비하면 아니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히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행 15:9). 마음을 더럽히는 사단의 계략과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지킴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깨끗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다 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직 그리스도의 의(Christ's righteousness)만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는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긍할 것은 오직 우리 행한 것 죄뿐이란 사실과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되므로 성결한 생활을 실현해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편 51 편 10 절)

마음관리에 소홀이 하므로 잡초가 많이 자라남을 탄식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마음의 정원사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수요기도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Day 19: 고난의 유익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욘 2 장 2 절).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춤 추시는 하나님”에서 한 네 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네 가지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deny)하려고 하든지 무시(ignore)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suppress)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든지 안 하든지 할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찌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춤의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 장 1 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겪은 고통은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요나의 고난은 큰 물고기 뱃 속이었습니다(1 절).

다시 말하면, 요나의 첫번째 고난은 스올의 뱃속이었습니다(2 절).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요나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바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물론 이것은 바로 왕의 생각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 찬송가 539 장 3 절 가사처럼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2) 요나의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3 절).

여기 ‘파도’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이라는 뜻으로써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부서트리고 계셨습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만 깨뜨리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1:4)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3) 요나의 고난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4 절).

요나가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멀리 떠나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듬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 편 1 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육신적으로 큰 물고기 뱃 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파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 어두운 방안에 갇혀 있는 것과 아버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로운 것처럼 어떠한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 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4) 요나의 고난은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욘 2:7).

여기서 ‘피곤하다’란 단어의 뜻은 ‘쇠퇴해가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는 극도의 낙심 지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혹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이 삼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극도의 낙심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적 무기력함과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특히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대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누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 편 71 편).

춤 추시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것을 배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의 유익을 누리면서)

Day 20: 고난 속에서의 감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요나 2 장 1, 9 절).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로 신음하며 상처와 눈물 속에서 허덕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까지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누구 탓이라도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탓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탓, 상황 탓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잘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사람은 더욱더 이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되면 우리는 고난이 자기 자신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이기적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나 2 장 1 절과 9 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1 절),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기 위에 넘치는 상황에서(3 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속과

그의 영혼이 그의 속에서 피곤해 가는(쇠태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요나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 1 장 17 절을 보면 바다에 던지움바 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요나는 오늘 본문 요나 2 장 1 절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문장에 나오는 “기도”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이트팔렐”인데 이 단어는 감사 기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상상 2 장 1 절과 삼하 7 장 27 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음]. 좀 의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는 현재 자기가 당면한 고난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사 바다에 던지움바 된 자기를 삼킨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요나 3 장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요나 2 장에서 즉, 큰 물고기 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는 고난에서 또 다른 (더 큰)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과거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면한 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재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6 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그 다음 날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습니다(25 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 2 장 1 절과 9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요나 선지자도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건져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히 13:8).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아무리 절망처럼 보이는 큰 물고기 뱃 속 같은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절망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요나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2 장 8-9 절을 보십시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란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헤벨”과 “썸”인데 그 의미는 “헤벨”은 “속히 증발하는 호흡”이란 의미요 “썸”은 “텅 빈, 공허”란 의미입니다. 즉, 우상들은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 빈 것처럼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여 거짓되고 헛된 물질을 숭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버린 후 주일 교회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감사하므로 올라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상 숭배자들(idol worshipers)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호흡처럼 속히 없어지고 텅빈 것처럼 헛된 것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God worshipers)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히브리어: “헤세드”) 가운데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므로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도망가고자 했던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고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자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및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고난은 비록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현재 고난 속에서 그 은총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과거의 은총들을 마음에 신실하게 간직하면서 우리는 현재 고난 속에서 기념하되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서 현재의 구원의 확신과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금요일 오후)

Day 21: 변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 장 1-3 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배를 수백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변화되어 가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 목사님들조차 변화되어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한탄하며 포기한 듯 느껴지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되어가지 않는 설교자의 모습에 비판과 불만이 끊여지지 않는 듯 합니다. 종교적 예식인 예배는 습관적으로라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듯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어가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바른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예배를 수 없이 드렸을지라도 왜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방향으로 변화는가가 중요합니다.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변질)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불 또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설교자 자신이나 성도들은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며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며 마음과 양심에 찔림과 더불어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이 강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악한 방향으로 변화를 받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대를 본받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인이요 크리스천이요 예배자라고까지 자칭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천의 숫자를 늘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욕심과 야망은 사람보기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요 싫어하시는 일일 뿐입니다(사 1:13, 1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 변화를 받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작년보다 금년 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 12: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2 절과 갈라디아서 5 장 16 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엡 2:2) 또는 “육체의 욕심”(갈 5:16)을 좇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좇았던 이 세상 풍속 또는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 장 19-21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비슷한 목록이 로마서 1 장 29-31 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함, 무정함, 무자비함.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 가기보다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대로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텐데 아직도 옛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 편 11 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두워진 우리의 미련한 마음대로(1:21), 또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1:24) 이 죄악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달란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에서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육신의 가정 식구들이던 영의 가정 식구들이 우리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개인 신앙생활 및 가정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외면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면의 변화는 등한히 하고 외면의 변화에 너무 신경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표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다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보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상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며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썩 잘하는 것 같고, 성경 지식도 있는 것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에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성품의 변화도 없고 행함의 변화도 잘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승리교회 식구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 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 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롬 12:2). 그리할 때 둘째로, 우리는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벧전 1:22).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엡 5:26).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기원합니다(온전한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 장 3 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프랑스의 근대 합리론의 철학자 데카르(R. Descartes)의 이 말은 인간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 사람에게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생식하고 죽는다’라는 이 네 개의 단어로 동물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사고하는 존재자입니다. 우리에게에는 이성이 있고 이 그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인터넷). 그런데 웬지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면서 살기보다 동물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과 논리가 결핍된 감정과 충동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허망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 장 21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찌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무가치하고 헛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생각 속에서는 무가치한 일, 헛된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일과 헛된 일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교회 안에 “... 음행과 ...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갈 5:19-21)과 같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 장 3 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분리함 등 이런 저런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때문입니다. 영적 우월감 같은 것이 왜 있습니까? 왜 선입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분수에 넘치게 평가해서 그런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 장 3 절에서 한 마디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 절 하반절).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디로, 분수있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정신 차려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결코 은혜를 아는 자는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 절).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겸손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나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갈 때 우리의 생각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과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새롭게 되는 마음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의 변화가 계속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다 겸손히 생각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 장 1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속이나 육체의 욕심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 가운데 맞는 삶의 열매는 바로 “거룩”(holiness)입니다. 과연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히브리어 코데쉬는 부정한 것을 잘라 내어 구분하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과 죄악과 분리된 삶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비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성도”라는 헬라어 “하기오스”, 거룩함은 “하”라는 부정어와 “개스”라는 땅, 세상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비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인터넷).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있는 삶은 결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Gospel-Powered Parenting”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 부모들을 변화시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4 장을 보면 저자 William P. Farley 목사님은 “A Holy Father”란 제목 아래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 “Such is holiness of the Father that when his Son bore our sin and transgressions, *God separated himself from him*”[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란 그의 아들(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아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독생자 예수님과도 스스로 분리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언행을 일삼아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더욱더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왕궁보다 광야를 사모하면서)

Day 22: 기다림

[시편 130 편]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함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어쩔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언행으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도 입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급함으로 일을 그릇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 장 4 절 말씀입니다.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조급하다(rash)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조급해집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가 인내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되고 그 분의 뜻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계획과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계획과 행동방침을 택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조급함에 사로잡히므로 말미암아 결국 사래는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할 것을 권면하고(창 16:1-2) 그 권면을 받아들인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하므로 결국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입니다. 조급함은 이렇게 믿음과 인내의 포기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래서 기다림이란 미덕이다란 말이 있는가 봅니다. 기다림이란 우리가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62 편 1, 5 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임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 되시며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사 30:15).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 편 6 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의 기다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다림을 파숫군들이 아침을 기다림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는 파숫군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의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숫군들은 누구입니까? 파숫군들은 성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성벽 위에서 혹여나 적군들이 침입하지 않을까 노심조차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숫군들은 적군의 침입 여부를 보려고 잠도 못자고 파수하므로 말미암아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숫군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그들은 밤이 밝기를 고대합니다(박윤선). 이러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파숫군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과연 시편 기자가 그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 편 5 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사죄하시고 구원해 주심이었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1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의 범죄로 인하여 놓여 있었던 “깊은 데”란 사람이 물 속에 빠진 것 같이 되고, 질식 상태가 될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깊은 데로 들어가되 큰 물고기 안에 갇혀 바다 밑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깊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 편 1-2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만일 주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면(박윤선) 주님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3 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기록하고 계신다면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자가는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설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고(4 절)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4 절)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죄를 사해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깊은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죄의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하였고 다 지웠다. 이제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겠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 얼마나 자유와 해방 가운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놓여 있었던 고통스러운 상황, 즉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증거로 자기를 건져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기다렸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8 절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 시편 기자처럼 깊은 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치 물 속에 빠져서 점점 깊이 가라앉는 것과 같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그 깊은 데 놓여 있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과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Day 23: 말씀의 흥왕

[사도행전 19 장 8-20 절]

21 세기 선지자로 불려졌던 A. 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That Incredible Christian)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주어야만 교회에 나온다. ...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기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힘 빠진 손으로 겨우 붙들고 있다.” 과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일즈맨이 그의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단점을 숨기듯이, 균형을 상실한 복음전도자는 부정적인 면을 숨기고 오직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토저). 우리는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천성의 길을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광야가 없이 약속의 땅을 강조하는 것, 마치 죽음이 없는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짜 진리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되 성기기보다 성감을 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크리스천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진리가 총만한 성도가 되어 합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진짜 말씀이 총만한 교회가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 장 20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흥왕”이란 제목 아래 어떻게 말씀의 흥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 장 10 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8 장 19-21 절을 보면 바울이 그의 2 차 선교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방문했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바울에게 좀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한 일이 나옵니다. 그 때 바울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9 장 1 절에서 바울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8 절).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습니다(9 절). 이들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 불능의 완고한 불신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 년 날마다 강론했었습니다(10 절). 서방 사본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한 시간을 제 5 시부터 제 10 시(오전 11 시 - 오후 4 시)였다고 밝힙니다(Metzger).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인 관습을 잘 반영하는데 그 때 당시 오전 11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는 사실상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유상섭).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10 절). 여기서 아시아란 에베소 외에 북쪽 비두니아, 동쪽 갈라디아, 남쪽은 루기아를 경계로 한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의 서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J.A. Harrill). 당시 에베소의 인구만도 25 만 정도에 육박했는데 그 인근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숫자는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시사합니다(유상섭).

여기서 말씀의 흥왕이란 지역적으로 말씀이 퍼져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한다면, growing words(성장하는 말씀)은 growing numbers of believers and growing faith(성장하는 신자들의 숫자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흥왕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비방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 장 17 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본문 배경인 사도행전 19 장 11-17 절을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1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말씀과 능력의 사역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시아인들이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단과 귀신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크게 망신당한 사건입니다(13-16 절). 어떤 유대인들이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자들은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스게와는 본문에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었음). 이들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축출하려고 했지만(13 절) 악령(악귀)은 그들에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것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15 절). 악귀는 진실히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귀는 참 신자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귀의 조롱 거리, 또는 침략거리가 안 되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진실해야 됩니다(박윤선). 그런 후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겨(16 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된 후 두려워했습니다(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존경을 자아내는 두려움이었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흥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악귀들도 알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13-16 절). 악귀들이 바울도 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신앙이 참된 것인 만큼 악귀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참된 신앙자인 바울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악귀들은 무서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다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 장 18 절을 보십시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많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18-19 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와서 자백하며 행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란 그들이 바울의 말씀 사역 결과로 예수님을 믿은 이 후에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행해 왔던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유상섭). 마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사주보고 관상보고 또한 점을 보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삶은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유상섭).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은 전문 주술인들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술과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술과 관련된 책들에 포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불살라 없어진 책들의 값을 모두 계산하면 은화 5 만 개에 상당했다고 합니다. 한 은화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드라마와 같은 가치고 학자들이 볼 때에 그 때 불살라 버린 책들의 값어치는 50,000 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흥왕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자백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흥왕이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우리 승리장로교회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죄악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치 믿지 않던 주술인들이 주술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길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Sola Scriptura!)

Day 24: 거짓이 없는 믿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 장 5 절).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Eunice)와 그의 할머니인 로이스(Lois)처럼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에게 어울립니다. “디모데”란 이름은 “하나님의 보배”란 뜻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신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가짜가 아닌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로마서 4 장 18-21 절에 나와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 장 18 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 속에서도 그가 75 살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의학적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꿨던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 신실하지 못한 믿음, 위선이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는 바랄지 모르겠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바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마음으로는 의심하면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노라’고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실상 마음 속으로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는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불안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으로 인하여 적어도 양심에 찔림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만일 이러한 찔림과 괴로움도 없다면 참으로 거짓된 믿음이요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합니다. 바랄 수 있을 상황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우리는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눈의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 장 19-20 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자기와 아내인 사라가 직면한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 세 때 하나님께 약속인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란 말씀을 받았습니다(18 절). 그리고 자신이 백세나 될 때까지 25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더욱더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들 갖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월 지나갈 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원인은 살아 운동력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신실하지 못한 믿음, 위선이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 믿음이 연약해 집니다. 상황이 점진적으로 불가능해져 갈 때에 믿음 또한 점진적으로 연약해져 갑니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들춰냅니다. 즉,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철저히 들춰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 속에서 믿음 있는 척 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가리우게 됩니다. 위선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연약해 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는 불가능제로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 장 21 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의심하며 믿음이 연약해 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충분히 설득 당했습니다(fully persuaded). 그를 설득한 것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여금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짓된 믿음, 신실하지 못한 믿음, 위선이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결코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능한 일을 해결하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합니다. 위선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선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면 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충분히 설득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8:8).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각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고후 13:5).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승리장로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말씀 집회 첫 날 오후에 목양실에서)

Day 25: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121 편]

언젠가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 동문 모임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부부와 그들의 네 자녀와 함께 식사한 후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이들이 남자만 네 아이이다 보니 선교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동안 사모님께서 중국 선교 보를 하는데 참 독특하게도 사모님은 창녀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10 시간 버스 타고 2 시간 걸어 들어가서 외지인 산골 골짜기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를 잠깐 하신 후 사모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하시면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로 선교보고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 부탁 외에 재정 후원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오히려 우리를 돕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에 자기들이 있는 동안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나 작은 교회 목사님 부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라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 혹은 종종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1 편 1-2 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생각 하였던 시편 기자의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였습니다. 여기서 “산들”이란 산 같이 큰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큰 세력에게 도움을 얻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한 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시요 도움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박윤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무력함(helplessness)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는 죄악 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그 분이 만드신 “산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정한 도움을 이 세상의 “산들”에게서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 산들까지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 편 3 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 이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인데(사 53:6)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한국 청소년들의 탈선 이유가 궁금해서 한 번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나눕니다(인터넷):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성도·김지혜 교수 팀은 서울시내 중고생 431 명(남 224 명·여 207 명)을 대상으로 비행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남학생은 ‘불안감과 부정적 정서’가, 여학생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비행행동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 교수팀은 “남녀별로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불안감 등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인 비행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사고가 비행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청소년 남녀의 탈선 원인이 ‘부정적 정서(남)와 부정적 자기 평가(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좇는 제자들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 73 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 하였던 원인인 의인의 고난 그러나 악인의 형통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에서 탈선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1 장 29 절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므로 받고 누릴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시 121:3)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니까?

(1)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 편 3 절 하 반절과 4 절을 보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즘 계속 제 아들인 딜런이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자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딜런에게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제 아내를 지난 주일과 월요일 밤에 딜런에게 꿈에서 고릴라를 보았다고 하기에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그 고릴라를 죽이고 딜런이는 죽이지 않는 작은 풍선에 약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들고 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아마 주일 밤에는 잘 잤나 봅니다. 저희 부부가 딜런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여도 악몽을 꾸는 아이 옆에서 계속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졸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지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난관에 처한 성도를 도우시는 것은, 그의 정하신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래 참기를 배워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해로운 것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 편 5-6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우편에서 제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목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이 사막에서 계속 나에게 쬐 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햇빛이 짹짹 재는 한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을 사모하며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달려 지쳐 있을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 그에게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낮에 해와 밤에 달 같은 해로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몰아 닥치는 이 세상의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 편 4 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 편 7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환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되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게 허락하셨다가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진리에서 탈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지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보내온 책들 중 프리셉트라는 사역에서 보내온 12 월호 목상 집 책에 제 QT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무심코 한번 목상 집을 펴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글인 것 같아 좀 자세히 보니까 제 이름과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프리셉트 사역 편집부에 있는데 제 QT 글을 너무나 잘 요약해서 그 목상 책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QT 내용은 호세아 2 장 14 절 중심으로 목상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것은 징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 즉 고난(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눈 QT 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 모든 종류의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은 바로 구원(건지심)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383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러한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빙니다 ...” (찬송가 349 장)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Day 26: 참된 교회

[시편 87 편]

A. W. 토저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은 믿음의 위선을 경고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참신앙 회복서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체험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 죽은 정통만 간직한 채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는 신앙 등이 현대 교회의 몰량주의에 의해 왜곡된 '가짜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들플신앙,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참 신앙으로 되돌아와야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 목록에 다섯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워하지 않는다(1 장), (2)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2 장), (3)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 우선순위를 둔다(3 장), (4)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4 장), 그리고 (5)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5 장) 반면에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본문들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목록에서 한 여덟 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1) 가짜는 인스턴트이다(7 장), (2)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8 장), (3)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9 장), (4)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10 장), (5)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11 장), (6)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12 장), (7)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13 장) 그리고 (8) 가짜는 영적 균형 감이 없다(14 장) (인터넷).

우리는 요한일서 4 장 1 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에는 우리믿는 성도를 옳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곧 하나님께서 온 성령과 우리믿는 성도를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거짓 영인 악령이 있는데, 우리믿는 성도는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 그리고 참된 선지자, 참된 교회, 참된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미혹의 영인 악령에게 꾀임을 받아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거짓된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참된 교회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참된 교인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시편 87 편 말씀 중심으로 과연 참된 교회는 어떠한가 한 4 가지로 목상하면서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 편 1 절을 보십시오: “그 기초가 성산에 있음이여”. 이 말씀은 참된 교회의 영적 기초가 견고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참된 교회는 견고합니다. 어떻게 참된 교회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마 16:18). 여기서 “반석”이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입니다(16 절).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바른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 장 20 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ajkrogoniai'o")인데 아크로는 '높은(high)'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데 세워진 반석"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건물들은 모퉁이 돌로써 건축이 시작되고 이 돌의 향방에 따라 건축물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건물이 서야 하며 모든 교회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집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 성전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럼 왜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87 편 2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 이유는 그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초석)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며 그 말씀의 터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

오늘 본문 시편 87 편 3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city of God)이기 때문입니다(3 절).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이란 책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는 서로마제국이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서로마제국의 몰락은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을 집필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인 "가장 위대한 세상의 도시는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책을 집필한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로마는 313 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으며, 마침내 정치와 종교가 하나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그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가 야만족(고트족)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야만족들에게 멸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깊이 묵상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나라인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인터넷).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영광의 주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기뻐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16 장 18 절대로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승리장로교회가 에베소서 5 장 27 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a radiant church)로 세워주시길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길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26 절).

셋째로,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 편 5 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기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는 말씀은 지존자이신 주님께서 시온, 즉, 그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지존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심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 함께 시온 백성이 될 것입니다(4 절)(박윤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나라의 백성들로서 다민족이요 우주적입니다. 결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선입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족과 민족끼리 주님 안에서 벽이 있고 다민족과 다양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시편 87 편 5 절 말씀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기초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들어나는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 편 6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 리로다(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이 천국에 입적함, 곧,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박윤선). 이 예언에 속한 민족들 중에는 라합, 곧 애굽과 바벨론, 볼레셋, 두로와 구스도 포함되 있습니다(4 절).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4 절).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 모든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늘 본문 7 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3 장 20-21 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과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는 흔들리는 기초 또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가짜 교회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교회는 세상 시민 공동체입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목사 나눔(‘주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친히 세우소서’)

Day 27: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시편 137 편]

2009년 5월 14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교계인사 300여명, 한국교회 자성 촉구 비상선언”이란 제목아래 기사가 써 있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목회자의 복음적 책무와 자정(自淨)을 위한 선언>라는 제목 아래 한 8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첫째,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둘째, 교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셋째,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할 것이다, 넷째,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교회 간 양극화를 초래한 일은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 다섯째, 세상의 학위와 명예보다 영성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여섯째, 개인의 경건성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노력한다, 일곱째, 복음적 바탕위에 깨끗한 교회의 정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덟째,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에 힘쓸 것이다’. 저는 이 여덟가지 비상 선언문을 읽으면서 참 귀한 선언문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이 선언문 대로만 우리 교회들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8개 선언문들 중 제일 첫째 선언문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 이 첫번째 선언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로써 이룩한 개혁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지향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하여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며, 뼈아픈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복음적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자 다짐한다.”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선언문 내용입니다. 특히 교회는 복음적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들(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 편 1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곳에 있으면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이 멸망시킨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시편 136 편 23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한 데”,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37 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기에 그 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자들(바벨론 사람들)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고 명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자기의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2-3 절).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억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오락용으로 부르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4 절). 이러한 한탄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면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그 눈물을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가 흘렸던 눈물은 회개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울음은, 회개의 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는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회할 것입니다(박윤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 등이 제 마음에 있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마음에 무거움과 근심과 걱정 등으로 차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요기도회 후 저의 죄를 들춰 내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후 어제 수요기도회 전에 먹다가 남았던 Kentucky Fried Chicken(KFC) 빵 한조각을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제 눈가엔 눈물이 꿀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도회 때 설교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회개 가운데 교회에 참된 회복과 화목과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흘렸던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는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범죄하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욥 2:9)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 분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죄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신랑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거듭나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 편 6 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찌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은 이방인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즐거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 중심된 경건한 삶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방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마치 집을 떠난 자녀가 그의 부모님과 집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말마암아 폐허가 되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전처럼 번창하길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가 되어 합니다. 즉, 폐허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시사 초대교회 때처럼 번창하길 기원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사 그 때만큼 교회의 전성기 언제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시대,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어 성령의 역사, 그러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현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참된 번창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처럼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6세기 종교개혁 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참된 종교 개혁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교회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에 그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문답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대답, 곧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는 그 분의 교회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먼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울어야 합니다. 교회의 범죄하므로 황폐한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역사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길 원한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거기서 극락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시온의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7-9절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원수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심판, 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7절 상 반절에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에돔 자손을

바벨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돔 자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에돔은 기뻐하였습니다 (욘 10-16).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본래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숙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박윤선). 그러면에서 오늘 본문 7-9 절에 나오는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압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바벨론을 비유한 에돔 자손을 쳐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악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은 앞 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즉 교회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벌)하시므로 그의 백성들(교회)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구원과 더불어 교회의 원수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과 찬송가 246 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2002 년인가 3 년도에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승리장로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움과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한 대로 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참된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Day 28: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 장 1-3 절]

언젠가 주일 오후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을 갖은 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은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수면제 약인지 많이 드시고 자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날 주일 오후 교회 몇 분들이 찾아가서 그 집사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일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한 대학생이 선교지에 나아갔다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람 속에서 어떻게 그 형제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바 아버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제의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친구들 및 교회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곤곤한 일이, 죄악된 일이, 죽을 일이 쌓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과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란 단어를 생각하면 욥기 16 장 2 절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사도행전 4 장 16 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생각 납니다. 욥기 16 장 2 절 말씀은 욥은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게 하는 안위자”(sorry comforter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 장 16 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가리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권위자”(Son of Encouragemen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보다 오히려 번뇌게 하는 번뇌게 하는 위로자였지만 초대 교회에 나오는 바나바 선생은 참된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에 불타는 위로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주위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로버트 스트랜드 목사가 쓴 “위로의 영성”이란 책을 보면 상처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101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머리말을 헨리 나우웬 신부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그는 “위로”라는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care of soul)입니다. 같이 울어 주는 것, 같이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 주는 것, 돌봄은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웬 신부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 슬픔은 우리들을 춤추게 합니다. 또 우리 춤은 우리 슬픔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어릿광대의 얼굴이 슬퍼 보이기도 하고 기뻐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슬픔과 춤, 비통함과 웃음, 애통함과 기쁨은 모든 한 곳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렇듯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솔로몬 왕도 자기가 본 것을 전도서 4 장 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학대받는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4 장 2-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학대받으면서 살바에 아예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솔로몬 왕은 학대받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더 낫다고 자살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살을 권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자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국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과거에도 우리는 접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만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면서 삶에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살 충동 속에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2절은 자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아 지혜자 솔로몬 왕도 학대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가 보다’라고 잘 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지 죽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앗아가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결코 자살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권세 잡은 자들의 학대로 인하여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의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죽음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의한 압제를 받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죽음만 못하다는 것뿐입니다(박윤선). 과연 죽음만 못한 고통스러운 생활하면 어떤 생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탈북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Wall Street Journal* 이 2006년 5월 1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소개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가명인 한나라는 여인(36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어려운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옷감 장사로 나섰는데 옷감을 얻기 위해 국경마을에 갔다 저녁 식사 도중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중국 사람에게 팔려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너 같은 북한사람을 죽이는 것은 닭을 죽이는 것보다 쉽다”는 폭언과 함께 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당하면서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면서 당시에는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이 한 두개 이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접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읽혀지더라’.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3절의 말씀이 얼마나 더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겠습니까? 죽은 자나 산자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습니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탈북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도 않고 또한 죽는 것을 원할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온 삶을 뒤돌아 볼때 참 죽지 못해 사신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쉬고 산다는 자체가 죽음만 못한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눈물 속에서 거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할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오늘 본문 1 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우리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은 주위에 진정으로 나의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더욱더 괴로운 사실은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진정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아니 어쩌면 너무 괴로워서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인의 악행은 끝이 없어 보일 때, 학대와 압제의 행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마지막 꿈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3 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쓰신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 받은 것은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 42 편 5, 11; 43 편 5 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시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낙심이 될 때에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제 자신에 선포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제임스야 너는 왜 낙망하며 왜 불안해 하는냐. 제임스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저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자 기도하며 애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낙망하며 절망 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꼭 시편 말씀 아니래도 예를 들어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분의 고통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에야 참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망될 때 요나서 2 장 4 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찌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비록 제가 주님의 종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의 폭풍을 맞아 바다 깊은 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낙망하며 절망될 때 이 요나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낙망과 절망을 주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절망이란 예수님을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로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철저히 이 세상에 실망하며 절망까지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철저히 실망하며 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절망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좀처럼 갈망하며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39 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의 3 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때에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5 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찬송가 82 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 절과 5 절].

우리 소망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여러분들이 거절할 때에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서로 맞닿는 그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 즉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의 눈물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기 가정보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더 생각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I see Christ in you ...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사랑의 불타는 위로자가 되길 기원하면서)

Day 29: 마음을 확정하라!

[시편 57 편]

언젠가 저희 집 막내 딸 예은이랑 함께 집에 있었을 때 어린이들이 보는 TV 방송 중에 “카이유”라는 만화를 잠깐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만화를 보다가 카이유라는 주인공 아이가 아빠랑 함께 나무를 심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카이유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카이유 아빠가 카이유에게 와서 도와주는데 심은 나무가 바람에 휘청 휘청하니까 막대기를 갖다가 나무를 묶어서 심은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어버이 낱알 새벽기도회 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심은 나무 옆에 함께 묶여있었던 막대기가 되어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막대가와 같이 아이들에게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 겠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저자: 김종윤)이란 책을 읽고 난 후 독자서평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아버지의 소중함,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를 내주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소중한 분... 무심코 지나간 이런 아버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내 마음속에 일깨워준 좋은 책였습니다”, “인생의 버팀목, 아버지 (조건중): 살아가면서 가깝지 않으면서도 큰 버팀목으로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다.” 저는 이 독자서평을 읽으면서 많은 아버지들과 아들(또는 딸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면서도” 또는 “가깝지 않으면서도” 아버님은 소중한 분이시며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신앙의 부모님이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저 또한 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어하실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 편 7 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마음을 “정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영어 단어 “steadfast”는 확고 부동한, 고정된, (신념 등) 불변의, 부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말씀은 이 길 이 방법 밖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의 삶이 행복합니다. 흔들리는 삶과 정한 삶의 차이는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처럼 큼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이 확정된 마음입니다. ... 우리들의 마음이 한곳으로 고정되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갈팡 질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은혜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확정하라!”는 제목 아래 마음이 확정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확정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피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 편 1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시편 57 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제에 적혀 있는 “알다스헷”이란 말씀은 “멸망시키지 마소서”(Do Not Destroy)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4 절에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의 대적자들인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사자로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그만큼 잔인모도하게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들은 다윗의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습니다(6 절).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재앙인 사울로 인하여 멸망당할 정도의 생사 갈림길에 놓여있었을 때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그는 “주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말씀은 비유로서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는 날개와 같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비유는 성경 여러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신명기 32 장 11-12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우리가 보금자리에서 너무나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마치 어미 독수리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높은 동지에서 새끼를 밀쳐 떨어뜨리듯이 우리를 떨어트리십니다. 그 때에 우리는 마치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독수리의 본능이 고개를 들고 나와 필사적인 날개 짓듯이 우리 또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사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새끼 독수리는 땅을 향해 속절없이 떨어져 내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하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 땅에 부딪히기 직전의 순간, 쏜 살같이 날아온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위에 새끼를 업어 다시금 동지로 날아오르듯이 이러한 극적인 순간의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마음이 확정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 편 2 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한 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2절). 다윗은 지극히 낮은 곳에 처해 있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떨어져 하강하면서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재앙의 구렁이에 깊이 빠지면 빠질 수록 소망이 나에게 없고 오직 주님 밖에 없음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 큰 물고기 안에서 깊은 바다 속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욘 2:4). 둘째로,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였습니다(2 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뜻(his purpose)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사야 14 장 24, 27 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라 …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가 경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salvation)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기도로 의지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 편 3 절을 보십시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의 뜻을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사 자기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그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오직 그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음이 확정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 편 5 절과 11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 절 후반절에서 9 절을 보십시오: “...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7 절). 확정된 마음은 어떠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3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확정된 마음은 한번 죽음을 각오합니다. 다윗은, 한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로, 확정된 마음은 모든 선을 행하려고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색은, 마음 준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표없이 늘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준비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확정된 마음은 주님을 믿고 안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바, 하나님이 신자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확정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가 작아지고, 내가 고난과 역경에 환경에 처해있을찌라도 마음이 확정된 신앙인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덮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비록 재앙이 자기에게 미쳤지만 그는 주님께 감사하므로 그를 찬양했습니다(8 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크신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3 절). 그러므로 다윗은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10 절).

저희 교회 장을수 할머니란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한번은 제가 그분을 뵈러 양로원에 가서 그 분께 ‘할머님은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름다우신 이유는 저는 그 분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리시면서(특히 찬송가 40 장과 355 장) 시편 23 편을 외우시고 또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종종 외우시는 장할머님을 뵈면서 참으로 숨질 때 때도록 주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께 마음이 확정하여 그 분에게 피하시며 그 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으시면서 그 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장할머님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분의 본을 받아 저 또한 마음이 확정하여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 자녀들과 성도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가 만민 중에”와 “물이 바다 덮음같이”를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

Day 30: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시편 81 편]

언젠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식구 5 명이 다들 저희 부부 침대에 벽을 기대고 앉아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저와 제 아내와 아들 딜런은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첫째 딸 예리는 자기 동생 예은이에게 무슨 공주 (princess) 책을 들고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읽다가 “우리 이젠 예배 드리자”고 말 하니까 예은이가 아쉬운지 힘들게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리가 성경책 첫 장을 읽고 제가 짧게 그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후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은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 밖으로 제 앞에 세운 후 함께 기도하겠느냐고 물으니까 “No”라고 예은이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너는 너가 읽던 책을 가지고 너 방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은이는 얼굴이 좋아서 웃으면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사실 예은이는 우리가 다 모여 책을 읽기 전에 오빠 성경책을 몰래 오빠 책장에서 가지고 와서 혼자 저희 부부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혼자 말하면서 이미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은이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예배 드릴 때는 그 읽던 공주 책을 그렇게 더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딜런와 예리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 예은이는 일찍 일어나서 그 책을 아마 보고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그 책을 보고 싶었으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예은이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였지만 예은이가 원하는 것은 그 공주 책을 더 읽고 싶어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가정 예배 기도 시간에는 저희 부부와 딜런, 예리만 함께 하였고 예은이는 자기 방에서 공주 책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 책을 언니 예리가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예은이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예배 시간도 늦춰서 가정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은이에게는 아마도 공주 책 읽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마치 예은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데로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이란 마치 철이 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1 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3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 가지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 편 1 절을 보십시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시편 기자는 유다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일에 관하여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 절) (박윤선). 그 찬송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God our strength)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이 찬송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에 힘을 얻는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힘을 공급 해 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8 장 10 절 하 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신앙 사상의 단합과 경건의 공적 고백과 영적 생명의 장성을 위한 것입니다(박윤선).

(1)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서로 신앙 사상의 단합”이라는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서로 재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목적은 “경건의 공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3) 셋째 목적은 바로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데 목적이 우선이 된다면 이러한 ‘나-중심적인 찬송’은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한 몸임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찬송”을 바로 드려야 합니다. 바로 드리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1 절), 악기들을 동원하여(2 절), 주님의 날에(3 절)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높이 노래해야 합니다(1 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율례”(a statute)요 또한 하나님의 규례(an ordinance of God)입니다(4 절).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 편 7 절을 보십시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셀라)”. 시편 기자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며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케 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0 절에 나와있습니다: “...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10 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채움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비워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오늘 본문 11 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입니다(9 절).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 및 헌신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11 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 편 8 절과 13 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 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2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퍽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박윤선): “그 하나는, 그 죄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버려 두심이고, 그 둘째는, 적극적으로 그 죄인이

고난 혹은 멸망을 받게 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 더 무섭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 버려두시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의 원수들에게 맡기셨습니다(14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한 두 가지로 오늘 본문 14-16 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14 절).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원수들을 향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 1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은 물질적 축복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풍족한 땅에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 외에도 사도행전 1 장 8 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 교회 120 성도들이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오늘 14 절과 16 절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사 우리에게 향하시던 징벌의 손길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향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가족 친척 식구들이 다 저희 형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고모부 목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 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온 가족 친척 식구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길 기원하였습니다. 비록 그 때 저의 넷째 삼촌인 김창혁 목사님께서 암으로 고통 중에 계셨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후 다 통성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금식 기도 릴레이를하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들 헤어지기 전에 김창혁 목사님께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계시다가 거실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 식구 친척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40 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절과 후렴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과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처럼 이 땅에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Day 31: 승리의 비결

[시편 18 편 28-42 절]

언젠가 한국 국가대표팀과 L.A. 갤럭시와의 축구 시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시합 전에 신문에서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관하여 “스리백”이나 “포백” 수비 시스템을 사용하나 말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리백 수비 시스템은 전형적인 것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포백 수비 시스템은 신형 수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전 감독도 사용하려다가 적응이 안되서 스리백으로 돌아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위원장 맡았던 이용수 세종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스리백이나 포백이냐는 이분법을 적절치 않은 분류다. 히딩크 감독이 스리백을 쓰기는 했지만 핵심은 전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기 위해 높은 전술이해도가 필요했고 강철체력이 요구됐다”. 이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느낀 점은 전체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교회 또한 조직(organization)이면서 동시에 유기체(organism)이기에 우리 교회 지체들의 유기적인 섬김 또한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축구에서 “높은 전술이해도”와 “강철체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몸의 강철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 편 28-42 절을 보면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그를 띠 띠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2, 39 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 다섯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은 “지식의 능력”(The power of knowledge)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외에 누가 반석이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31 절). 참 하나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호 4:6).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 장 24 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28 절). 오늘 본문 시편 18 절 28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기서 ‘등불을 켜다’는 말씀은 번영한다는 의미로서 군인인 다윗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The power of the Word)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30 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므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 장 16-17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함을 받으며 의로 교육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순간의 삶 속에서 최악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들로 인하여 수시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때 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 그 때 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의 싸움과 최악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서 지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18:23). 또한 그는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30 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33 절).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의 능력”(The power of dependence)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9 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기가 부모님을 의지하다가 커가면서 서서히 독립해 나아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지나 갈 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 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적군에 달리듯이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담대하게 또한 용기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넓게 하시며 또한 그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36 절).

넷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술의 능력”(The power of skills)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다윗의 팔이 활을 당기게 하셨습니다(34 절). 하나님께서는 군인인 다윗으로 하여금 합당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천직에 합당한 기술을 주십니다. 곧, 상인이면 상업에, 문인이면 문필에 재능을 주십니다(박윤선). 지혜자 솔로몬 왕은 “오직 지혜(skill)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전 10:10).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지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지혜로운 사람들(every skilled person)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줄 알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출 36:1).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일꾼에게 지혜(기술)도 주십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함도

있어야 겠지만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구원의 방패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성령의 검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룰 줄 모르는 성령의 검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술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의 능력”(The power of character)입니다.

다윗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35 절). 주님의 온유하심,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부족한 인간인 다윗을 너그럽게 도와주신 결과 그가 위대해졌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입니다. 특히 그 인격 중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과 기술의 능력과 인격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승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군기를 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자들입니다. 승리!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Day 32: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삶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 장 20 절).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remember)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celebrate)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rejoice)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 장 20 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연 요셉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념하였는지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십칠 세의 소년 때(창 37:2) 자기의 열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1) 요셉이 자기의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였기 때문이요 (2 절), (2)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요(3 절), 그리고 (3)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5 절). 그 결과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18-20 절), 빈 구덩이에 집어넣은바 되었고(24 절)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28 절) 애굽 사람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39:1).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4 절).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여(6 절) 보디발의 아내에게 계속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다가(7, 10, 12 절) 결국 둘만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녀의 손에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그 집에서 나아갔습니다(11-12 절). 그리고 그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14-18 절)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계 갇히게 되었습니다(20 절). 만일 요셉이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나중에 삼십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41:46)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받은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했다라면 그는 분명히 과거에 머물러 현재의 자신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39:2, 3, 21, 23). 특히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므로 말미암아 전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21 절). 그랬기에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약 9년쯤 되었을 때[30세의 총리 + 7년 풍년 + 2년(45:6) = 39살]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45:5), “하나님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7-8 절상반절).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렇게 애굽까지 와서 종살이와 더불어 옥살이까지 하였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 자신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7 절). 그러므로 그는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8 절).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롬 12:2).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부터 이미

이뤄나아가고 계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둘째로,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 식구들을 섬깁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가정 식구들을 섬겼습니까?

(1)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형들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히 자기 앞에 있는 형들을 복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지난 세월을 바라보았기에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들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이 세상에 그들의 후손들을 두시고자 자기를 앞서 애굽에 보내심을 깨달았기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나온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로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창 41:51).

(2)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이나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구하고자 애굽에 내려왔을 때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곡식과(42:26, 44:1) 돈(42:28, 44:1)과 옷들(45:21-22),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그리고 암나귀 열 필(23 절)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온 가족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45:18), “애굽 땅의 좋은 것”(20 절, 참고: 47:6, 11)을 주었습니다.

(3)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이 요셉을 흑시나 자기들을 미워하여 자기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을까봐(50:15)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거짓말로 말했을 때(16-17 절) 요셉은 울면서(17 절)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18 절)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21 절):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리이다”(19-21 절 상반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던 형들의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풍족히 베풀어 주면서 두려워 앞드려 떠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위로 받기보다 그의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의 형들과 온 가족 식구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채워져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형들과 온 가족식구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가족 식구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식구들의 잘못은 용서하면서도 육신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에게 한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식구들에게 좋은 것들로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품을 받기를 원하면서 불만족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위로 받기 보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식구들을 위로하되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가족 관계를 그저 신경을 들쓰면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족 식구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기 보다 좋은 것으로 베품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위로하기보다 위로 받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요셉처럼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되 우리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되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족 식구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과거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기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합니다.

창세기 50 장 24-26 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사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24 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5 절). 그리고 요셉은 일백 십 세에 죽습니다(26 절).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다가 그 약속을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므로 인내하며 견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죽음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참으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에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자기의 역할, 즉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잠들었습니다. 그의 역할 또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45:7).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50:21). 그래서 요셉은 극심한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자신의 형들과 온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46:3).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는 일백 십세에 애굽에서 잠들었습니다. 즉, 요셉은 객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잠들었기에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념하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기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육신의 식구들과 영의 식구들인 교회 식구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삶 속에 기념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기억하며 기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Day 33: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 장 6 절).

언젠가 북한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 참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로 인하여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후폭풍과 유리 파편으로 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 많은 사람들이 실명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특히 룡천 소학교에서 부상을 입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안구를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 룡천 소학교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들은 시인 김용택씨는 그의 시 "룡천 소학교 아이들아"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 룡천의 아이들아! 언 땅을 뚫고 돌아나는 새 풀잎 같은 이 땅의 아이들아! 학교를 잃어 버린 아이들아 동무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돌아갈 집과 부모 형제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아 뜨거운 불길에 데인 얼굴들 아! 아! 이 느닷없는 죽음, 고통, 슬픔, 추위, 배고픔, 이 공포를 어찌 할까나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 저는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란 부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안구가 아닌 영의 안구가 부상을 입어서 영적 실명에 놓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라는 탄식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녀들이 영적 실명에 놓여 있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의 영적 실명입니다. 이것은 곧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과연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Right Valu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정 삶 속에서 보여 주고 있는지 한 번 뒤돌아 봐야합니다. 신앙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가치성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눅 16:15)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바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우리가 값지게 여기는 것 혹은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 장 21 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졌던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히 11:26).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보화를 더 좋아하는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 보았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보화를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삶을 방화하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와좌왕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목적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턴 소요일 문답 제 1 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뚜렷한 목적관은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단 1:8). 세상에 관점에선 기회인데 그가 그 기회를 마다한 이유는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관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관에 다니엘은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를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쉽게(?) 자기의 귀한 생명을 앗아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인생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절망을 줄 수 밖에 없는 헛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는 바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약 4:14). 잠간 보이다가 없어질 짧은 인생,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것 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인생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생각하는 사람
만이 영원한 나라의 관문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많은 영혼들에게 삶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맺으신 복음의 열매를 가리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빌 4:1).

과연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인생의 종착점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람은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에게 온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구를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룡천 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나"라고 탄식한 한 시인처럼 우리는 과연 영의 눈이 실명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뚜렷한 목적관, 그리고 영원한 인생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른 가치관과 뚜렷한 목적관 그리고 영원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 그리운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랑하는 그리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린이 주일을 하루 앞두고)

Day 34: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시편 110 편]

지난 주일 4 구역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영적 전쟁” 제 6 과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마음 열기”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직면한 가장 큰 싸움터는 어디인지를 나눴습니다. 그 큰 싸움터가 가정임을, 또한 직장임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내면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과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허리 띠인 진리, 방패인 믿음, 흉배인 의, 투구인 구원, 신발인 평안의 복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싸우고 있습니까?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며 또한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주일 구역 성경공부를 한 후 그 다음 날 월요일 제 자신의 큰 싸움터인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월요일 밤 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제 자신을 뒤돌아 보았을 때 제가 설교한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영어 예배 때에 선포한 “둔하여진 마음”(막 6:52)과 주일 한국어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인 “구원을 위한 것”(행 27:27-44)이란 말씀 내용 부분이 생각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포한 말씀 내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루 온 종일 그 말씀을 거역하며 제 마음대로 죄악 된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온 제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제 자신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가치함, 그리고 죄악 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 사람과 싸워 패배한 내면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후 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월요일 날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 나눈 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일 한국어 예배 때 선포한 말씀 중 빌립보서 4장 6-7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요일에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10 편 3 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을 한국 서교동에 있는 서현 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서현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서현 청년부를 가리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참 좋은 문구라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편 110 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말씀을 보고 과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가리는 우리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세움을 받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란 주님의 권능의 날, 즉 주님의 전쟁의 날에 대장 되신 주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천국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께(1 절) 즐거이 헌신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듯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수 많은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의 영적 군대를 의미합니다(박윤선). 이 주님의 영적 군대인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딤후 2:3-4). 즉,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군대에 모집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모집된 주님의 영적 군사들로서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알고(빌 1:29) 주님의 고난에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3:10).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군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에게 충성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거룩한 인격을 지닌 자들입니다.

새벽이슬은 먼지 묻지 않은 신선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영롱한 이슬의 맑음처럼 순수함을 가진 주의 청년들을 가리킵니다(인터넷). 이 순수함을 가진 주의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시 110:3). 다시 말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적 군사들이 주님의 전쟁에 나아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로서 이슬 같이 빛나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들춰내고 책망해야 합니다(엡 5:11, 13). 결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로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11 절). 그리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힘을 공급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 함에 있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은 이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 전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엡 6:12). 그러므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카롭게 하며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므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욕심으로 하여금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서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공급받는 새 힘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선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이슬이 밤중에 고요히 내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서 들으므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결코 쇠약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의와 죄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 장 15 절을 보면 “여호와 닛시(The Lord is our Banner)”란 말씀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여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11 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였습니(15 절). 전쟁을 승리케 한 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인터넷).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영적 싸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큰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서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그리고 순간 순간 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우리의 싸움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찬송가 400 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를 수요 기도회 때 승리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한 후)

Day 35: 아름다운 늙은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시편 71 편 9 절).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을 보고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늙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나니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늙은이”라고 칭해도 되는지 제 짧은 한국어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그저 성경에 “늙은 때”라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램은 “늙은이”란 말에 어르신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 마음은 어르신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늙은이는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 또한 아름다운 늙은이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71 편 5 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주님께 교훈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17 절). 그러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찬송가 342 장). 그에게 있어 주님은 견고한 피난처였습니다(7 절). 그의 원수, 곧 시편 기자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10 절) “하나님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하였을 때(11 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2 절). 이렇게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항상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가 본 받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많고 심한 고난을(20 절) 당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며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도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20 절). 이렇게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늙은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후대에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시편 71 편 18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그의 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와 능하신 행적을 그리고 주의 의를 진술하길 원했습니다(16 절). 그의 혀는 종일토록 주님의 의를 말씀하였습니다(24 절). 그 이유는 그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15 절). 시편 기자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완수하기 이전엔 늙어 백수가 되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늙은이는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백수가 되기까지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후손들에게 진술하며 전하는 늙은이는 지혜롭습니다. 자신이 평생 행한 일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는 늙은이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라고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늙은이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71 편 14 절을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세월 지나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였던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들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리되 그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더욱 찬송했으며(14 절) 또한 항상 찬송하였습니다(6 절). 주님을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시편 기자의 입에 가득하였습니다(8 절). 그는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였습니다(22 절).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을 수금으로 찬양하였습니다(22 절). 그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신의 영혼이 즐거워하였습니다(23 절).

우리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찬송가 403 장 1 절). 우리 영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병원에 계신 교회 어르신을 방문하고 온 후)

Day 36: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시편 90 편]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 8 복음>, <가스등> 등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그녀의 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스웨덴 출신으로서 유럽을 풍미하다가 더 크게 명성을 떨치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영화에 출연해 두 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만한 명배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배우가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리우드여! 실버스크린이여 …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종국에는 암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묻습니다. ‘왜 사는가’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헤매다가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생애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홍정길).

목표를 이뤘지만 허무함을 경험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은 바로 전도서를 쓴 지혜자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쓴 전도서 1 장 2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쓴 전도서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서 만이 인간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도 헛되고(1:12-6:9), 쾌락과 물질도 헛되며(2:1-11), 물질 생활도 헛되고(2:12-23), 압제도 허무하며(4:1-3), 모든 수고도 헛되며(4:4-12), 정치도 헛된 것입니다(4:13-16). 솔로몬 왕은 사색이나 관념으로 이러한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교훈 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하고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인터넷).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2 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Teach us to number our days)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란 기도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3-10 절을 보면 인생이 왜 허무한지 3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인생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에 허무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3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경은 흠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 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9). 흠으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흠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도 전도서 3 장 19-2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혜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2) 인생은 잠깐이기에 허무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4-6 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신속히 왔다가 신속히 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홍수에 휩쓸려 일시에 몰사하는 것처럼 인생들의 생명은 얼른 얼른 죽고 맙니다. 인생은 마치 잠깐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남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 말씀대로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는 것과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 장 14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특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시 90:2)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 인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짧고 짧습니다. 잠깐이요 또 잠깐일 수 밖에 없는 인생 허무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3) 인생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허무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0 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년 수가 칠십, 강건하면 팔십, 신속히 날아가는 한 평생 동안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도 전도서 2 장 22-2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 인생,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찬 인생,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왜 인생이 허무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흠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 너무나 신속히 가는 짧은 인생, 그리고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에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인생을 가치 있게 지내야 할 것을 가르치소서’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세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1 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12 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잠 1:7).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 장 1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자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주님의 인자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4 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평생 동안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허무하게 인생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주님의 인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6 절을 보십시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년 수대로) 기쁘게 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15 절). 그래서 그는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많은 한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 편 17 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언젠가 사무엘하 9 장 1 절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두 발이 다 절뚝인 므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였던 다윗, 그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7 절)고 말씀하면서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발을 다 도로 주었고(7 절) 또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7, 10, 11, 13 절). 그리고 사울의 사환인 시바에게 그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 열 다섯 명, 그리고 종들 이십 명을 다 므비보셋을 섬기게 하였습니다(10 절). 그 때 므비보셋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다? 8 절을 보십시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 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그저 저는 감사, 감사 또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는 것입니다: (1 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 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냇물은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름다움을/ 과시 하다가 한잎 두잎
소리없이/ 떨어질때는 허무함 뿐이구나/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낼때도 순간 뿐이구/ 우리의
인생도 젊음을 과시 하는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낙엽이되어 지는 해와같이
늦가을을 맞게 되니 허무함 뿐이로다. 삶이 힘들다고 아우성 치던때도/ 모두다 지나가 버리고
지는 낙엽/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다리는/ 처량한 모습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처럼/ 삶의 여운이 소리없이 흔적없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아 이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되어/
추적으로 물들어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구나”.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느끼면서 값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Day 37: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전도서 6 장 7-12 절]

어제 화요일 헐리우드 차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김성관 집사님을 뵈러 간 것입니다. 폐가 안 좋으신지 지난 주 금요일 입원하셔서 병원 측에선 계속 검사를 하시고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들렀을 때 집사님은 85 평생 살아오시면서 결론은 모든 것이 허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왕의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살아오신 한 어른신의 결론을 들으면서 저는 과연 이러한 헛되고 헛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12 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림자”하면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그림자”하면 저는 생각나는 것은 그림자는 생겼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일평생을 그림자 같이 보낸다고 말씀한 그 의미는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말씀은 신속히 보내는 일평생을 뜻합니다.

욥기 14 장 1-2 절을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옴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사람의 삶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되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 90 편 10 절에서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자량이 수고와 슬픔뿐인 칠, 팔십 사는 인생,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시편 기자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이 세상에서의 짧고 헛된(의미가 없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12 절을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말씀들만 뒤돌아보아도 지혜자 솔로몬 왕은 계속 반복적으로 ‘헛되다’(1:2; 2:15, 19, 21, 23; 3:19; 4:7, 8; 5:10)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1:14, 17; 2:11, 17, 26; 4:4, 16), ‘무엇이 유익한고’ 무익한 것이로다’(1:3; 2:11; 4:8; 5:11, 1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 아무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 헛된 생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짧고 신속히 가는 일평생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일평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전도서 6 장 1-6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그 죄인이란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재물, 부요, 존귀 및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매장도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일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짧고 의미가 없는 헛된 날들을 이 세상에서 보냈다고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같은 일평생, 신속히 가는 일평생, 왜 헛된 것입니까? 왜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전 1:8).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기에 이 세상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7 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가리키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3 절에 진술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그 사람이란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된 자보다 불행한 자로 간주된 자입니다(박윤선) 이 사람은 자기 입을 위하여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자기의 식욕이 차지 않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 식욕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낙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만 하므로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이유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8 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일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일들을 지혜 있게 처리하는 겸손한 자라 할찌라도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에 구원을 받지 못한자로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2 장 12-17 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거기서도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랴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16-17 절).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가야할 길은 죽음, 문제는 죽음 후입니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워서 일을 겸손히 잘 처리한다 할찌라도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속히 가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이란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과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빌 4:11).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한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입니다.

둘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이란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회 때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 결국 나중엔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 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작게 여겼던 과거와 지금 현재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하시사 자백하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슬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게 하셨으면 내려 놓을 것을 내려 놓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섬기게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하고 지혜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이요 의미있는 삶입니다.

셋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이란 현재의 좋은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9 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구절을 어느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것을 생각함보다는 현재의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낫다.” 즉,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폐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등을 다 받았을지라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전 6:1-6). 이러한 사람은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고 계시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낙이 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즐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 중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 이 축복을 겸손히 지혜롭게 누리므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야 합니다. 이러한 누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넷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10 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위치와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벌써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씩 현실 생활에서 진리를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박윤선).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투면서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와 분수를 결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될 듯이 덤뻐합니다. 이것이 헛되다고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1 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모두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2 절)(박윤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책의 결론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12:13).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6 장 7-12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그림자 같이 신속히 가는 세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데... 저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세워가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감당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즐기면서)

Day 38: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 편]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실 때 여러분이 겪었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는 그 때 그 순간들, 그러나 그 위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오늘 양로원에 가서 저희 교회 장을수 할머니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제 품에 고희 잠든 첫째 아기 주영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기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기를 병중에 더 고생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에 대하여 장할머님과 나누면서 저는 인생은 시작보다 과정과 특히 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위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는 찬송가 중 “내주여 뜻대로”(431 장)가 있습니다. 그 찬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 전역이 30 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 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아 1 천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어느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심방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을 때 이 목사님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교회와 집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동켜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온몸과 영혼을 다주께 드리니/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 올린 기도예 곡이 붙여진 것이 바로 찬송가 431 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고통과 시련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시편 48 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히 14 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4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책임 또한 한 4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1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 절). 그러시기에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방식이 큰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방식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우리 마음에 가득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구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던지 혹은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40 년동안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다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출 8:16).

언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시되 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구원해주시다가 결국은 13 년이 지난 30 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일을 묵상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식대로 구원하시되 죽을뻔하다가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고난에서 또 다른 고난으로 구원으로 받는 모습 … 그러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사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요셉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를 고난에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다가 구원하시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까?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은 그의 큰 구원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던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던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3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처럼(2 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견곤한 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 편 4 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안위(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난처시라고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3 절). 우리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보면 번번히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두번 구원하셨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시는 하나님에게 피해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시 31:2-3).

셋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4-5 절을 보십시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어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이 말씀은 외국의 임금들이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점령하려 했으나 안개처럼 지나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 때 침략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자들을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듯이 주님께서서는 열방들의 세력을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0 장 4 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 자신의 활아니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시 44:6-7).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로목사님을 위험한 순간 순간마다 건져주시는 소식을 접할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1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의 공의를 어김없이 실행하시사 마침내 참된 신자의 억울함을 갚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박윤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뢴 때에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저희 교회 히스패닉 사역(Hispanic Ministry)를 담당하고 계시는 고메즈 목사님의 아들 경우입니다. 한 2 주전 고메즈 목사님에게 아드님 Victor Jr. 형제 고소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차사로를 냈나본데 그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대방이 힘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사고 났을 때 보고(report)를 작성했던 경찰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차 사고를 낸 정치인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이 관련된 일하는 회사에서도 고메즈 목사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고메즈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그 정치인과 거짓 보고를 한 경찰과 회사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2 주전에 법정에서 판사는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후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의 변호사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메즈 목사님의 아드님이 법정에서 고생하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었으니 그 동안에 벌지 못한 돈을 상대방에서 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고소해서 끝까지 그들이 거짓말한 것 등등을 법정에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메즈 목사님 얘기로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참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신다는 진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상대방 정치인과 거짓말한 경찰 등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중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즉 우리는 중단하고 멈출 때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4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1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47:6).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좁은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므로 말미암아 광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극진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9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생각하였나이다”라는 히브리 원어 “따맘”은 대망함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 환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의 은혜를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박윤선). 우리는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대망해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11 절을 보십시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정의가 총만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하여 그의 구원을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4) 우리는 후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8 편 13 절을 보십시오: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예루살렘)에 계시므로 그곳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1 세대들이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후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므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 장 6-7 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정의가 총만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를 극진히 찬송해야 하며 그의 전에 그의 인자하심을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Day 39: 축복의 사람

[시편 84 편]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직한 아브라함’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10대 시절, 어느 가게의 점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돈을 치르고 갔는데 링컨은 나중에야 10센트를 거슬러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0센트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휴일인 다음 날 3마일 떨어진 곳까지 손님을 찾아가 1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정직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돈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첫날 그는 “10대 시절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참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누린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의 양가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가 부모님을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4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복이 있나이다”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4, 5, 12절).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과연 “축복의 사람”이란 누구인지 한

세 가지로 목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축복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 편 4 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박윤선).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가기를 심히 사모하였습니다(1-4 절). 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그리 사모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심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였습니다(1 절).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이 성립시킵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신 4:7),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므로 그곳이 그리 사랑스럽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 편 2 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신체까지 쇠약 해졌습니다. 그가 그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심히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3 절)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 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3 절).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마치 자기 집을 사모하는 참새가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데 자기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서글픈 자신의 신세를 아프게 한탄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기를 애원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0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의 궁정에서 거주한다 함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면서 하루 사는 것이 악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천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이 시편 기자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맛을 보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4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처럼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3 년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찬송가 246 장 “내 주의 나라와”를 부르면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1 절을 부르면서 마음이 몽글하여 울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3 절인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를 부르면서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와 충성하길 결심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저 천성을 생각할 때 어찌 그 곳에 거하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전인 저 천성을 향하여 이미 순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히브리서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것입니다(히 11:13).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16 절).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고전 13:12).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것을 생각하며 위에 것을 찾아야 합니다(골 3:1-2). 그러한 자가 참으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 편 5 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축복의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 전에 올라가고 싶은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 가운데 그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힘을 얻기를 사모하였습니까? 7 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가 주시는 힘을 얻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이 시온의 성전에 올라 갈 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옛날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보려는 경영과 노력에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그 끝에 ‘많은 샘의 곳’, 곧 심령의 안위와 희열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른 비’ 같은 천래의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을 뵈옵는 일을 영적으로 체험합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 이소서(셀라)”(8 절).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축복의 사람” 혹은 “주께 힘을 얻고”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 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질 거예요”. 이 찬양은 시편 84 편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낙망 했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있어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 그 곳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저 천국이 마음에 그리워집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점 더 천국화 되어가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 그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걷어가는 그 발걸음은 힘이 있고 소망에 가득 찬 발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축복의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 편 12 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떠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의지하였습니까? 첫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9 절). 시온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에 많은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기에 시편 기자는 더욱더 교회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시 7:10). 둘째로, 시편 기자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11 절). 시편 기자가 의지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342 장 1 절과 후렴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 믿음, 우리는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오직 예수님 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을 의지하는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은 높아질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Day 40: 이 시기를 아십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 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 장 11-14 절).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어가 짧아서 한국어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종려주일 주보를 만들 때마다 “종려”(Palm)라고 적지 못하고 “종료”(Conclusion)라고 적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는 틀렸지만 왠지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종료인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고난(수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 이렇게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서 3 장 1-14 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 중 전도서 3 장 1 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1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11 절). 과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한 두 가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시기란 바로 주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11 절). 다시 말하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의 때. 즉 우리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Glorification)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11 절)(MacArthur).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시간이 흐른 그 만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잠에서 벌써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자다가 깰 때”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지금은 최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란 뜻입니다(박윤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만큼 최악이 극도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본문 12 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빛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졌다는 뜻이고 “밤이

깊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만큼 이 세상에 최악의 밤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와졌기에 이 세상의 최악의 밤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1 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귀절 첫 머리에”kai touto”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NASB 성경은 이 문구를 “And this do”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는 “또한 너희가 이것을 더욱 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욱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13 장 8-10 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임을 알고 더욱더 힘써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 장 12 절에서 말세 지말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2 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악의 밤이 더욱더 깊어졌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들을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 버려야 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3 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어두움의 일인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인 헬라어 단어 “κῶμος, *kōmos*”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영화롭게 하는 축제 과정에 사용되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엔 과도하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파티,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며 미쳐 날뛰는 술 파티 등에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Cottrell). 결국 사람이 방탕하게 되면 술에 취하여 절제력을 잃고 흥청망청 되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기도회 때 묵상한 전도서 2 장 3 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기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다? 술취함으로 쾌락을 얻고자 한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11 절). 과연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연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5 장 18 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갈라디아서 5 장 19 절에서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기 때문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또한 벗어 버려야 할 어두움의 일은 바로 “음란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란과 호색이 가득찬 이 세상, 과연 왜 이렇게 음란과 호색이 가득차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원인을 우리가 이마 묵상한 로마서 1 장 24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있다 교만하여(1:22) 썩어지지 아니한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23 절).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묵상한 로마서 13 장 8-10 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 중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9 절). 그렇게 말씀한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3 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하는데 그 어두움의 일 중 하나는 바로 “음란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헬라어 단어인 “κοίτη (*koitē*)”의 문자적 의미는 ‘침대’(bed)입니다. 이 단어는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무차별한 성적 혼합 (sexual promiscuity), 또는 성적 과잉(sexual excesses), 그리고 매춘행위(harlotries)를 가리킵니다(Cottrell). 그리고 “호색”은 “예의를 문란하게 하며 색을 탐하는 행위”로서 “불건한 언사, 혹은 불결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3-4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색욕을 좇아서는 아니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만큼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3)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쟁투와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투”란 무엇입니까? 쟁투란 다툼의 기질, 언쟁과 사소한 일로 다투는 영을 가리킵니다. 쟁투란 상대방을 해가 될지언정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자 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반영합니다(Cottrell). 우리는 이러한 쟁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관계에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결국 영의 일을 도모하기 보다 육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의 일,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2 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behave properly)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란 죄악된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낮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의 생활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단정히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란 질서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단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명령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고전 14:33).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 장 40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 장 14 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화(sanctification)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말씀합니다(MacArthur).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87 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란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참 아름다우며(1 절), 귀하며(3 절) 또한 “영광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함.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 첫 날인 오늘, 하나님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악의 밤이 깊도 빛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하는 것, 쟁투와 시기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예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서있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오시는 그 날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영광의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